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인쇄/1997년 12월 26일

발행/1997년 12월 29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교류협력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4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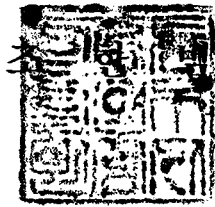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18-4

4,500원

연구보고서 97-09

•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중국 경제개혁과 페레스트로이카와 더불어 시작된 러시아 경제개혁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경제체제전환의 의미를 띠고 있다. 본 연구는 상이하게 진행된 경제개혁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양국 경제체제개혁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교연구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전환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킬 것이다.

1. 이론적 검토

사회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이 실시한 경제체제개혁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를 보였다. 첫째는 개혁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부분적인 범위에 제한하는 ‘점진적 경제체제개혁’이다. 점진적 경제체제개혁은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의 이중구조를 유지하면서 비국유부문의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 등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는 비국영 기업의 급속한 증가와 국유부문의 상대적 축소로 특징 지워지는 개혁에 힘입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 두 번째는 ‘급진적 경제체제개혁’으로 단기간에 전반적인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 개혁은 구체제를 급속히 해체하고 새로운 시장요소들을 이식하며, 개혁의 범위도 경제체제전반을 포괄한다. 급진적 개혁의 시행자들은 자유화와 거시경제의 안정화조치를 실시하고 사유화과정을 통해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듯이 단기적으로는 경제후퇴형의 경향성을 보였으며, 전면적인 재구조화과정에서 국유기업이 급속히 축소된다.

2.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개혁

점진적으로 시행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78년부터 1984년까지의 첫 번째 시기는 농업개혁주도기였다. 개혁세력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부업과 자유시장을 허용하고 농가생산책임제를 실시했다. 농업개혁조치들의 핵심적 요소는 시장기제의 도입과 소유권제도의 부분적인 수정이었으며, 이는 사회주의 제도의 틀 내에서 시장요소들을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통해 농업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타났으나, 개혁이 농업부문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84년부터 1987년에 이르는 두 번째 시기 경제개혁의 주요 목표는 도시지역의 경제체제개선이었으며, 중점은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에 놓여졌다. 이를 위해서 계획·세제·재정·가격·임금·해외무역·경영 등에서 개혁조치들이 취해졌다. 계획에 의해 묶여있던 품목들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가격체계가 이중가격제로 변화했다. 또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증가했으며, 대외개방을 위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들이 만들어졌다.

세 번째 시기는 1987년 13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경제개혁은 보다 종합적인 측면을 띠고 확산되어나갔으나 동시에 조정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개혁세력들간의 공업부문개혁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고, 개혁에 수반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1988년의 가격자유화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상당기간 중국의 개혁은 성장보다는 안정에 두어졌다. 경기과열로 인한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션의 억제,

중앙의 거시적 통제력의 강화, 그리고 자원분배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었고 수출의 장려와 아울러 수입은 억제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제8차 5개년 계획기간(1991~1995)중 중국의 GDP는 평균 11.7%의 고도성장률을 나타냈으며, 가격과 조세제도가 시장친화적 형태로 변화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개혁과 경제성장은 상응하는 문제점들을 동반했다.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수반했으며, 국유기업의 개혁문제는 8차 5개년계획과정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의 중국경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에 대해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GDP가 전년 대비 9.7% 성장했으나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되는 '연착륙'을 이룩했다.

경제개혁은 중국경제에 시장경제적 특성의 확대를 중심으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시장화의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아직도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효율도 낮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국영기업 개혁문제와 비대한 국가재정적자규모, 그리고 아직 불안정한 가격체계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실업인구도 증가추세에 있고, 발전으로 인한 수혜계층과 비수혜계층간의 사회적 격차도 커져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시기의 부분적 개혁 시도와 페레스트로이카의 시기, 그리고 1991년 말 이후 전반적이고 급진적인 시장체제로의 이행기로 대별되어질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포함하는 기업의 자율성확대, 경제운영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 가격·금융제도의 개혁, 새로운 조직구조의 형성, 그리고 민주적인 관리체제의 형

성 등이었다. 그러나 코르바초프의 개혁은 사회주의체제내의 개혁이라는 한계때문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엘친의 부상과 더불어 러시아는 자유화를 시작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경제구조개혁 등 급진적 경제개혁을 시작했다. 1992년 초 전반적인 가격자유화조치를 시작으로, 상업활동의 자유화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자유화조치들은 안정화정책에 의해서 균형을 잡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국유기업과 국유재산의 사유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2년 초기의 가이다르 경제팀의 자유화, 안정화, 사유화를 위한 급진적 개혁조치들은 의도했던 결과들을 얻지 못했다. 생산감소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긴축재정을 비롯한 안정화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개혁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자 국민불만의 증폭을 배경으로 반대파들의 저항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가이다르 총리체제는 개혁에 대해 보다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체르노메르던체제로 교체되었다. 체르노메르던 총리의 등장에 따라서 가이다르식의 급진적 개혁은 사실상 끝나게 되고, 오히려 일부영역에서는 긴축기조를 완화시키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러나 시장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전체기조는 유지되었다. 경제개혁조치들로 인해 러시아는 비교적 빠르게 시장체제를 형성했으며,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성장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러시아는 정치적인 불안정성과 범죄, 부패, 그리고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심각한 생산감소, 아직도 높은 인플레이션, 대규모 사유화의 문제, 비생산부문의 과도성장 등도 문제점에 해당한다.

3. 양국의 경제개혁과정 비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은 서로 다른 구조적 조건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우선 개혁초기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정도와 방향성이 달랐다. 러시아는 시장과 사회주의의 병존가능성을 부정했지만 중국은 이 두 가지가 반목하지 않고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서 사회주의체제의 완결성의 정도, 경제의 중앙집중화 정도, 소유권제도의 형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상태, 그리고 경제체제개혁으로 인한 정치적 재조정의 결과도 달랐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에 있어서 개혁의 돌파구는 서로 다른 처방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가격자유화를 경제개혁의 돌파구로 사용했으며, 농업에서 효율성있는 개혁조치들이 시행되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농업이 경제의 주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후진적인 농업부분의 개혁을 돌파구로 삼았으며, 부분적이며 순차적인 방식을 통해 가격자유화를 진행시켰다. 러시아의 개방은 급속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개혁 초기부터 개방정책을 실시했던 중국의 경우 개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주로 비국유기업들의 성장에 기초했으며, 러시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국유산업에 대한 충격과 이에 기인한 경기후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개혁의 가장 커다란 시사점은 중앙계획경제체제가 시장지향형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사회주의체제에 만성적이었던 부족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체제전환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개혁의 주요 추진력은 비국유부문의 발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비국유부문의 성장과정에서 국유기업은 점차 전체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주

목해야 할 대목이다.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로의 급진적 이행에 있어서 경기후퇴와 인플레이션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공핍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반면 구체제의 기득권층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상층구조를 형성했다. 이 과정은 노동자들에게 개혁에 비판적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좌파와 민족주의 정치세력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개혁에 비판적인 정치세력의 부상은 개혁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어렵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시장경제체형성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완성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최근 성장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평가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이들 국가들의 경제체제전환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아직 잠정적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이 주는 공통적인 시사점은 어떠한 경제개혁정책을 선택하든 성공여부는 시장화의 추구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전환과정의 성패여부는 체제전환방식의 차이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체제전환방식의 선택과 정책의 수행은 각 해당국가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들에 의해서 영향받으며, 동시에 경제외적인 다양한 변수들도 경제체제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험은 북한체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은 우선적으로 농업부문의 개혁을 필요로 하나, 공업화가 중국보다 높기 때문에 개혁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유사조치들이 공업부문에서도 필요하지만, 국유기업의 개혁은 농업부문의 개혁에 비해서 어려운 과제이다.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탈중양화과정은 과도기적인 혼란상

태를 수반할 것이며, 엘리트층들의 지대추구행위와 부패가 체제전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하경제화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와 다른 조건 특히 남한의 지원은 경우에 따라서 북한경제개혁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목 차 -

제 I 장 서론	1
제 II 장 이론적 검토	4
제 III 장 중국의 경제개혁	10
1. 농업개혁 주도기	12
2. 기업개혁 주도기	14
3. 조정기	16
4. 8차 5개년계획기	19
제 IV 장 러시아의 경제개혁	25
1.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	26
2. 러시아 연방의 경제개혁	31
가. 가이다르 총리체제의 급진적 개혁	31
나. 체르노메르딘 총리체제와 급진적 개혁의 완화	36
제 V 장 양국의 경제개혁과정 비교	42
1. 출발조건	42
2. 주요정책의 비교	45
3. 평가	51
제 VI 장 결론	66
참고문헌	72

제 I 장 서론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성립초기부터 크고 작은 개혁들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를 전후한 동유럽과 구소련지역의 경제개혁은 이전의 경제개혁과 규모와 속도 그리고 성격상 본질적 차이를 나타냈다.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혁은 체제유지를 전제로 체제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동유럽과 구소련지역 대부분에서 실시된 경제개혁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전환의 의미를 띤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도 결국 시장기제의 성장에 따라 계획기제들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은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 대체로 동유럽과 구소련지역의 급진적 경제체제개혁과 중국 및 아시아 사회주의권의 점진적 경제체제개혁으로 나누어지지만,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경제정책의 시행과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났다. 구소련지역의 국가들이 경제체제 개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데 비해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시아 사회주의권의 경우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경제체제개혁을 택했던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했으며, 천안문사태를 제외하면 정치적인 갈등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권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은 이행경로와 적합한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형성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행에 대한 일반화도 시도되고 있다.

2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계획경제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두 국가 모두 사회주의의 지배적인 국유산업을 독립적인 상품생산자로 전환시키거나 시장경제체제로 편입시키는 것 등과 같은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구조적인 상이성에 따라서 개혁정책의 경로와 방법이 다르게 시행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1992년초 가격자유화를 시작으로 자유화·안정화·자유화정책들이 급진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개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초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인 생산감소가 경제체제 전환기의 부정적 특성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다수의 논자들이 러시아 경제가 구조적인 재조정을 끝내가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은 러시아에 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경제개혁조치들은 소규모 실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점진적으로 시행된 중국의 개혁은 러시아와 달리 성장을 구가했다. 특히 서비스와 농업 그리고 수출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중국은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형성을 목표로 한 러시아와 대조적으로 경제개혁의 최종목적지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특성과 출발조건 그리고 개혁전략의 형태 등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두 국가의 구조적 특성들의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개혁과정과 결과의 비교 검토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에 대한 유의미한 일반적 함의를 지닌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체제전환과정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주의 경제체제전환을 점진적 형태와 급진적 형태로 유형화하여 일반적인 함의를 추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정책의 시행과정과 결과를 분석했다. 또한 경제체제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과 개혁과정을 비교평가함으로써 두 국가의 경제체제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체제개혁의 대표적 사례인 중국과 러시아의 개혁과정에 대한 비교연구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전환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는 또한 향후 북한경제체제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역시 일반적인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II장 이론적 검토

각 국가들이 가지는 특수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첫째, 소유권 행사의 지배적 형태로서의 집단적 소유화. 둘째, 자원분배의 우선적 기제로서의 중앙집중적 계획. 셋째, 경제부문에 있어서 공업분야 특히 중공업분야의 선호와 서비스부문의 제약. 넷째, 농업의 집단화.¹⁾ 사회주의 경제체제개혁은 이와 같은 특성들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소유권의 지배적인 형태인 집단적 소유권은 민영화과정을 거치거나 자율적 자본형성과정을 통해서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자원분배의 독점적인 힘이었던 계획은 시장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대체된다. 또한 시장체제에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경제의 절대적 종속현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기초한 경제의 자율적 조절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이 실시한 경제체제개혁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를 보였다. 첫 번째는 ‘점진적인 경제체제개혁’이다. 이는 시간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부분적인 범위에 제한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점진적 경제체제개혁으로 지칭된다. 점진적 경제체제개혁은 경제성장형(growth-led transformation)의 경향을 보이며, 중국 등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비국영 기업의 급속한 증가와 국유부문의 상대적 축소로 특징지워지는 개혁에 힘입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 성장형 개혁과정에서

1) J. Sachs & Wing Thye Woo, "Experiences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p. 271.

사기업 혹은 준 사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점차 국유기업을 능가할 것으로 믿어졌다. 두 번째는 ‘급진적 경제체제개혁’으로서 단기간에 전반적인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 개혁은 단기간에 구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장요소들을 이식하며, 개혁의 범위도 경제체제전반을 포괄한다. 급진적인 개혁의 시행자들은 자유화와 거시경제의 안정화조치를 실시하고 사유화과정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듯이 단기적으로는 경제후퇴형(recession-led transformation)의 경향성을 보였다.²⁾ 성장형과 비교했을 때 전면적인 재구조화과정에서 일시적인 생산의 감소와 경기후퇴, 그리고 국유기업의 급속하고 광범한 축소가 발생한다.³⁾

삭스(J. Sachs)와 립튼(D. Lipton)을 비롯한 급진론자들⁴⁾은 충격요법(shock therapy) 혹은 빅뱅(big bang)⁵⁾으로 불리는 급진적 개혁만이 사

2) 경제성장과 후퇴의 경향은 시간적인 경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 1993-1994년에 이미 부분적으로 체제 전환기의 경기후퇴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전환기의 경기후퇴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치를 가지게 했으며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경제후퇴형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진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996), p. 60.

3) Minxin Pei, "Microfoundations of State-Socialism and Patter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2 (1996), pp. 131~132.

4) 급진적인 경제체제개혁을 주장하는 논의는 다수가 있으며, 여기에는 D. Lipton & J. Sachs, "Creating a Market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2 (1990). J. Sachs & D. Lipton, "Poland's Economic Reform," *Foreign Affairs*, vol. 69, No. 3 (1990). J. Kornai, *The Road to a Free Economy* (New York: W.W. Norton, 1990). A. Aslund, *Post-Communist Economic Revolutions: How Big a Bang?*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2) 등이 있으며, IMF, World Bank, OECD, 그리고 EBRD와 같은 서방의 국제시장 경제기구들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5) 급진적인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변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빈번히 인용되는 충

6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회주의경제의 체제전환에 효율성을 발휘한다고 주장했다. 급진론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급진적인 방식이 필요한 이유들로 다음을 들고 있다. 첫째, 전체적인 개혁의 요소들은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둘째, 시장의 형성으로 사회주의체제가 구축한 강력한 관료제도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체제개혁은 새로운 체제가 구체제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게 빠른 속도로 동시에 그리고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부분적인 개혁은 구체제의 요소들을 온존시키게 된다. 넷째, 새로운 경제규칙들과 제도들은 혼돈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속히 그리고 단호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진주의적 체제전환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개혁정책의 실시를 주장한다. 첫째, 전반적인 가격자유화를 단행한다.⁶⁾ 둘째, 화폐를 현실적인 수준까지 평가절하하고,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대외경제관계를 자유화한다. 셋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거시경제정책 등을 통한 안정화정책을 채택한다.⁷⁾ 넷째, 생산과 투자결정의 분권화와 사적 경제활동의 합법화, 그리고 사유화를 실시한다.⁸⁾

격요법과 big bang은 엄밀하게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충격요법은 big bang의 부분적인 요소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반대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한다. Ian Jeffris,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 to the Market* (London: Routledge, 1993), p. 333.

- 6) 폴란드에서는 1990년에 이미 국유부분의 임금과 에너지가격만이 통제를 받았으며, 러시아의 경우 1992년 1월 대규모의 가격자유화가 실시되었다.
- 7) 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의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안정화정책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들에 대한 연성예산편성(soft budget)을 중지해야 하며, 국유기업의 독점을 해체하고 이들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경쟁체제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 8) Wing Thy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p. 277.

급진적인 경제체제전환론은 동시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중심적인 비판은 구체제의 유산을 물려받은 국가들이 단기간에 시장 체제를 형성하고 경쟁체제에 적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형성한 구조적인 특성들(노동에 대한 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도 일시적인 처방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급진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은 전체적인 산업의 구조적인 재편을 가져오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생산감소를 매우 심각한 상태로 만든다. 이 과정은 전 사회적인 궁핍화를 수반하고 결과적으로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의 토대로 작용한다.⁹⁾ 체제전환의 속도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된다. 3~5년 사이의 짧은 기간에 서구적인 의미의 시장경제체제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또한 급진적인 체제전환론에서 주장하는 개혁정책들의 우선순위 부여도 논란거리이다.

점진적인 체제전환론을 옹호하는 논자¹⁰⁾들은 경제체제전환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의 논지에 따르면, 경제체제개혁은 구경제구조의 점진적 해체, 사적 경제활동의 장려와 점진적 사유화 등의 정책을 통해야 하며, 단계적

9) 동구와 러시아의 경우 선거혁명을 통한 정치적인 민주화가 경제개혁과 동시에 수반되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입된 선거제도는 역설적으로 경제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90년대에 치러진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개혁에 비판적인 좌파와 민족주의세력이 지배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했고, 결국 경제개혁프로그램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10) 점진주의론의 입장을 견지하는 논의들에는 Peter Murrel의 "Evolutionary and Radical Approaches to Economic Reform,"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와 "What is Shock Therapy," *Post-Soviet Affairs*, Vol. 9, No. 2 (1993)가 있으며, G. Calvo & J. Frenkel, "Credit Markets, Credibilit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S. Fischer & A. Gelb,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R. McKinnon, "Taxation, Money, and Credit in a Liberalizing Socialist Economy,"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 J. Hausner, B. Jessop and K. Nielson, eds., *Strategic Choice and Path-Dependency in Post-Socialism* (Edward Elgar, 1995) 등이 있다.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점진적 경제체제개혁의 핵심은 사회주의경제의 틀을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시장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국유부분과 사유부분으로 나누어진 이중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점진적 체제개혁은 초기에 구체제의 변화를 피하면서 시장경제요소들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을 집중시킨다. 이와 같은 초기단계의 조치는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동원을 가속화한다. 새로운 시장경제 부문이 충분히 성장한 후에는 그 스스로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경제부문에서 성장한 인적·재정적·사회적 자원들은 국유부분의 사유화와 개혁에 이용되어진다. 시장경제의 성장은 상응하는 사회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는 경제체제개혁에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사유화는 개혁초기에 사유화되었을 경우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¹¹⁾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바람직한 전환유형과 이를 위한 개혁정책의 형태에 대해서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혁이 점진적 혹은 급진적이어야 하는지, 개혁정책들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만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체제로의 체제전환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급진론과 점진론의 차이는 다분히 이론적인 수준의 논의이다. 이들은 이론적인 수준에서도 각 입장마다 통일된 합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제 각국의 개혁정책은 점진적 개혁정책과 급진적 개혁정책이 다소 혼합된 형태로 실시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

11) Peter Murrel, "What is Shock Therapy," *Post-Soviet Affairs*, Vol. 9, No. 2 (1993), p. 125.

구하고 급진론과 점진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과 개혁정책의 분석에 유용한 이념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은 급진적인 특성들을 지닌 것이었으며, 중국의 경우는 점진적인 특성들을 나타냈다. 러시아에서는 1992년 초의 가격자유화를 필두로 자유화·안정화·사유화 등의 정책들이 급진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초기의 경우 자유화와 사유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의도했던 긍정적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 인플레이션과 생산감소 등 부정적인 특성들이 최근까지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비해서 중국의 경우는 점진적 특성을 띠고 있었다. 형식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시행된 중국의 개혁은 러시아에 비해서 서비스, 농업, 수출부분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점진적 경제개혁과정이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의 구사회주의체제가 중국의 개혁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선택한 것은 경제체제개혁에 대한 목표가 상이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내부의 개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의미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국지도부는 개혁의 최종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수구세력과 개혁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다.¹²⁾ 따라서 중국의 점진주의적 개혁은 특별한 이론적 기반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양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교착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12) 중국의 스탈린주의세력은 새(경제)는 새장(계획)이 없으면 날아가 버린다는 '새장경제론'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반면 개혁세력은 시장경제론을 주장했으며, 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가 중국에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Wing Thye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pp. 279~280.

제Ⅲ장 중국의 경제개혁

1949년 사회주의체제 형성 이후 중국경제는 정치권력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다. 혁명 직후 좌파들의 주도권 아래 실시되었던 경제적인 조정기와 1차 5개년 계획기간, 그리고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대약진운동의 실패는 중국에 기아상태를 초래할 만큼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왔다. 이는 혁명 이후 효율적인 경제적 성장보다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우선시한 좌파들이 상당기간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문화혁명 이후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들이 권력을 장악하자 이념적인 요소보다 실용노선에 입각한 경제발전이 중요한 목표로 등장했다. 정책입안자들은 식량문제해결을 위해서 농업부문을 적극적으로 개혁했으며, 시장요소의 도입과 가격체계의 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또한 대외무역을 장려하고 외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개방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경제특구를 만들었다. 그 결과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주목할 만한 효과를 얻게 되었다.

사회주의체제와 시장의 원리라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중국체제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했던 대중적 저항운동이었던 1989년의 천안문사태는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개혁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었다. 천안문사태는 보수파들에게 개혁과정에 대한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그 동안의 개혁조치들의 결과로 이미 상당한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세계경제체제와도 긴밀하게 포섭되어 있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1992년에 개최된 제14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와 제14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의 결과 개혁세력은 공산당조직 전반에 걸쳐서 세력을 장악했다. 개혁세력은 1993년 제8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도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조치들을 마련함으로써 중국의 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었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급속한 성장을 동반했다. 1978년에서 1991년까지 중국의 GNP는 연평균 8.6%씩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일인당 수입의 증가율은 7.3%에 달했다.¹³⁾ 이와 같은 성장은 중국인구규모를 감안했을 때 매년 10%이상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성장률과 비교해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도 중국의 성장률은 매우 높은 것이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37개 저소득 국가들의 성장률은 평균 6.1%였으며,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34개 중하위권국가들은 2.1%였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 25개 상위권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6% 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국의 성장률은 평균 10.4%에 달해서 선진공업국들의 3배, 그리고 조건이 비슷한 인도의 2배이상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1987년 중국GDP는 구소련을 제외하고 세계 9위의 규모에 달했다.¹⁴⁾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경제개혁은 4시기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78년 12월의 제11기 3차중앙위원회 전체회의(11期3中全會)부터 1984년 제12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까지이며, 두 번째 시기는 1984년 10월부터 1987년 10월에 개최된 13차 당대회까지,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1987년이후 부터 시작되었다.¹⁵⁾ 그리고 4

13) *Statistical Year Book of China 1991* (Beijing: State Statistical Bureau, 1992), p. 31.

14) Ryoshin Minami,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London: Macmillan, 1994), pp. 11~14.

15) Wu, Hongguang, "The Practices of China's Economic Reform," *Economic*

번째 시기는 1991~1995년 사이의 8차 5개년 계획기이다.

1. 농업개혁 주도기

1978년 12월의 제11기 3차중앙위원회 전체회의(11期 3中全會)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세력은 ‘역사적 노선전환’을 선언함으로써 본격적인 개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개혁세력들은 ‘사상해방’과 모택동 사상에 대한 실사구시적 해석을 선언함으로써 문화혁명을 주도한 좌파들을 비판하고, 경제개혁을 위한 이념적 바탕을 마련했다. 이어서 이들은 구체적인 경제개혁조치들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중국경제개혁의 첫 번째 시기에서 취한 조치들은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기간중 피폐해진 농업부문에 관한 것이었다. 개혁세력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부업과 자유시장을 허용하고 농가생산책임제(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를 실시했다.¹⁶⁾ 이는 국가소유라는 사회주의 소유제도를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즉 농민들에게 국가소유의 일정한 토지를 경작케 하

Reforms in Socialist Countries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System and Information, 1990), pp. 43~44.

- 16) 중국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개별농민들이 생산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던 농가생산책임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78년 안후지역의 농민들이 농가생산책임제를 통해 집산화되어 있던 농업체제에 변화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미 1961~1962년 사이에 이를 통해서 일정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공산당지도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78년의 기근에서 안휘성 공산당 제1서기인 왕리는 농가계약체제(household contract system)를 도입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집산화되어 있던 중국의 농업체제를 해체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정부로부터의 압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생산책임제는 의도했던 것보다 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면서 급속히 확산되어 1983년 말까지 98%의 농가가 집산화에서 해제되었다. 이와 같은 농가생산책임제의 실시로 인해 농업생산과 농가소득은 급속히 증가했다. Katsuji Nakagane, "Economic Reforms in China," *Economic Reforms in Socialist Countries*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System and Information, 1990), pp. 162~163.

고 책임생산량 이상에 대한 자유처분권을 줌으로써 농업생산을 자극하는 방법이었다. 그 결과 농촌사회의 지배적인 소유제도였던 인민공사제도는 점차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농업개혁조치들의 핵심적 요소는 시장기제의 도입과 소유권제도의 부분적인 수정이었으며, 이는 사회주의 제도의 틀 내에서 시장요소들을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농민들이 생산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행사하자 곡물의 매매가격은 상승했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농업생산물의 가치 증가는 연평균 9%였으며, 1인당 곡물생산량이 319kg에서 395kg으로 확대되었고, 농산물의 생산도 24.2%가 증가했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농업부문의 축적은 증가했으며, 동시에 농촌의 공업도 활성화되었다. 농업부문의 잉여노동력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2차, 3차 산업부문의 새로운 일자리들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의 주목할 만한 성과들은 동시에 도시지역의 공업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했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새로운 구매력의 2/3는 농민들이었고 이는 국내공업생산을 자극했다. 이 기간중 공업생산물의 가치는 연 평균 8.9% 상승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이 동반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¹⁷⁾

흔히 첫 번째 단계를 농업개혁의 시기로 나누고 있으나, 이 단계의 개혁이 농업부문에 국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농업부문에서의 성공이 두드러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각 세대를 단위로 시행된 농가생산책임제의 효과는 농업산출의 증가 뿐만 아니라 토지에 얽매어 있던 잉여노동력을 유동적으로 만들었다. 이는 동시에 개혁의 다음 단계에 필수적인 소상품생산관계의 기초요소들의 형성을

17) Du Rungsen, "The Rural Economy," Peter Nolan & Dong Fureng, et al., *The Chinese Economy and its Future* (Polity Press, 1990), p. 181.

촉진시켰다. 따라서 중국개혁은 농업부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농업부문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먼저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실제로 공업부문에서의 개혁은 1979~80년 사이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농업부문의 주요한 개혁조치들이 실시된 1980~81년보다 빠른 것이었다. 그러나 공업부문의 개혁은 1960년대 동구에서 실시된 실패한 개혁을 답습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농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¹⁸⁾

2. 기업개혁 주도기

1984년에서부터 1987년 10월의 13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두 번째 시기 경제개혁의 주요목표는 도시지역의 경제체제개선이었으며, 중점은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에 놓여졌다. 이를 위해서 계획·세제·재정·가격·임금·해외무역·경영 등에서 개혁조치들이 취해졌다. 동시에 농업개혁은 농촌지역의 상품경제의 활성화와 농업구조재조정을 통해서 도시지역의 개혁과 연계되도록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서 중국경제는 공적인 소유제도에 기초한 계획적 사회주의 상품경제로 이해되었다.

1984년 10월의 1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개혁에 관한 결정’ 등은 기업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었다. 새로 만들

18) Barry Naughton, "What is Distinctive about China's Economic Transition, State Enterprise Reform and Overall System Transforma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p. 474. 공업부문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1970년 후반 사천성에서는 실험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했으며, 경제특구가 처음 설치된 것도 1970년대 말이었다. 실험적인 초기의 조치들로서는 기업에게 계획달성 이후의 생산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물질적 보상체계의 개선, 그리고 목표달성후 이윤의 일정부분 보유허용 등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은 8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어진 프로그램에 따르면 개별기업은 계획작성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원의 보유, 생산물의 판매, 고용과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즉각적으로 실행된 것은 아니었고, 기업의 지배인들이 자율성을 완전하게 행사하지는 못했으나, 과거와는 매우 다른 특성들을 지니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취해진 조치들은 시장화를 경제생활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것들이었다. ‘계획’과 ‘공적 소유’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분권화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첫째, 계획에 의해 묶여 있던 품목들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국가의 계획품목에 속해서 의무적인 생산과 통제를 받던 품목의 숫자는 1984년 120개 였으나 1986년 60개로 감소했으며, 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에서 20%로 축소되었다. 자원분배체계의 시장화도 동시에 급속히 진전되었다. 따라서 시장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상품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국가의 통제범위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둘째 가격체계가 개선되었다. 과거 국가의 통제로 일원화되어 있던 가격체제가 이중가격제로 변화했다. 곡물과 주요 원료들의 가격은 국가의 규제를 받았으나,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할당된 목표치를 초과하는 생산분에 대해서는 생산기업이 가격을 정하거나 계약자와의 협의된 가격을 적용시킬 수 있었다. 셋째, 재정체계가 개선되었다. 개혁 이전의 경우 모든 재정적 수입은 일단 중앙정부로 귀속된 계획에 의해서 지방정부와 기업에 재할당했다. 그러나 공업부문의 개혁 결과 기업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유하여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의 재정적인 자율성도 증가했다. 넷째 대외개방을 위한 실험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해외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4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SEZ)¹⁹⁾가 개방되었으며, 14개의 경제개발구(economic development zones)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과거 중앙정부에 의해서 독점되던 해외무역이 지방정부와 기업에 의해서 시행되었다.²⁰⁾ 이와 같은 조치들의 결과로 중국경제는 80년대 중반 고도성장의 시기를 구가했다.

3. 조정기

세 번째 시기는 1987년 13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경제개혁은 보다 종합적인 측면을 띠고 확산되어 나갔으나 동시에 조정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제 13차 당 대회는 중국이 아직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있으며,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형태의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발전시켜야 함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개혁이 지속되어야 함을 천명했다. 당대회 이후 중앙위원회는 해안지역의 발전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개혁과 함께 개방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19) 중국의 경제특구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79년이었으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신천, 주해, 산둥 등 3개의 경제특구는 광둥성에 그리고 또 하나는 복건성의 하문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후 1988년 해남도에도 또하나의 특구가 설치되어 전체적으로는 5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경제특구는 저개발국가들이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수출진흥지역이나 자유무역지대를 모델로 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는 외자유치와 대외무역활성화를 위한 특혜조치들이 취해졌다. 특구에는 발달된 사회간접시설들이 건설되었으며, 기업들에게는 세제와 관세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특구의 기업들은 임금과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다 융통성있는 정책을 취할 수 있었으며, 관료주의적 간섭도 별로 받지 않았다. 경제특구는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을 위한 실험실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eorge T. Crane,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M. E. Sharpe, Inc, 1990). 참조.

20) Katsuji Nakagane, "Economic Reforms in China," *Economic Reforms in Socialist Countries*, pp. 164~167.

그러나 이 시기에 중국의 경제개혁은 상대적으로 정체과정을 겪게 된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²¹⁾ 첫 번째 이유는 개혁세력들간의 공업부문개혁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견해차이는 국영기업의 개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개혁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체제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가격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측과 소유권의 변화를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었다.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국내의 상품가격의 상당부분은 실제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국가의 가격통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가격론자들은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가격구조의 왜곡상태에서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보다 광범위한 가격자유화를 통한 국영기업의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소유권의 개혁을 주장하는 측은 가격제도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기업이 개선된 가격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영기업의 소유권은 보다 시장친화적인 상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개혁에 수반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1978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1989년은 203.3이었으며, 같은 기간 도시소비자 물가지수는 219.4를 기록했다.²²⁾ 이와 같은 가격상승은 특히 자유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78년 이후 중국경제

21) Ibid., pp. 167~170.

22) 통계청, 「중국의 주요 경제사회지표」(서울: 1996), p. 221. 경제개혁 이전의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A. Eckstein, *China's Economic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p. 159~190. 참조.

의 개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사회주의 계획체제에서 인위적으로 통제되어 있던 가격은 시장가치에 입각해 재평가되어야 하고, 결국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었다. 가격개혁 없이 시장기제를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가격개혁은 불가피했다. 중국의 지도부는 급속한 물가상승을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 인플레이션은 정치적인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개혁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근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1988년 정부가 가격통제의 해제조치들을 취하자 물가인상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은행의 예금을 인출하여 상점으로 몰려들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정부가 가격자유화 조치의 잠정적 중단과 은행계좌 동결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진정되었다.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중국 지도부는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담배와 주류 등 중요성이 덜한 상품들의 가격은 자유화하는 제한된 조치들을 취했으며, 통화긴축정책을 운용했다. 따라서 1990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일정 정도 안정시키는 결과를 얻었다.²³⁾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중국의 지도부와 주민 모두에게 경제개혁과 인플레이션과의 상관관계를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8년의 가격자유화 시도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1989년 천안문사태²⁴⁾ 이후 상당기간 중국의 개혁은 성장보다는 안정에 두어졌다. 경

23) *Statistical Year Book of China 1991* (Beijing: State Statistical Bureau, 1992).

24) 호요방 전 총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된 천안문 사태는 처음부터 조직적인 체제비판의 외형을 띤 것은 아니었다.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부정부패, 물가고 등의 경제적 불안과 빈부격차의 증가 등 사회적인 이완현상을 지적하고,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촉구한 지식인과 학생들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심각한 정치적 사안으로 발전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동구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소련의 동요는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천안문사태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주변조건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개혁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던 보수파들은 개혁에 대한 견제를

기과열로 인한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션의 억제, 중앙의 거시적 통제력의 강화, 자원분배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었고 수출의 장려와 아울러 수입은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가격제도의 개선을 지속하고 해안지역의 경제발전과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위한 개선책들을 마련함으로써 개혁을 지속시켰다.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증권거래소를 상해와 심천에 개설했으며, 상해의 포동지구와 해남성의 양포개발구 등을 건설하여 대외개방에 힘썼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경제는 일시적인 경기침체를 벗어나서 다시 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했다.²⁵⁾ 경제개혁성과의 가시화는 보수파들의 저항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파들은 개혁을 가속화하는 조치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

4. 8차 5개년계획기

제8차 5개년 계획기간(1991~1995)중 중국의 GDP는 평균 11.7%의 고도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는 7차 5개년 계획기간(1986~1990) 중의 7.9%보다 높은 수치였다. 또한 1차 산업의 성장률(3.8%)보다 2차산업의 성장률(17.4%)이 높아져 산업구조도 현대화된 형태로 조정되었다. 1993년말에 개최된 제14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시도했으며, 등소평은 이를 일정정도 수용했다. 천안문사태와 중국의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Jacob Kovalio, "The 1989 Tiananmen Square Incident," *Asian Perspective*, Vol. 15, No. 1 (1991), pp. 5~36. Simie Scott and Bob Nixon, *Tiananmen Square* (Vancouver: Douglas & MacIntyre, 1990). Robert P. Weller, *Resistance, Chaos and Control in China* (London: Macmillan, 1994), 4장. Martin King Whyte, "The Social Sources of the Student Demonstrations," Anthony J. Kane, *China Briefing, 1990's* (Westview Press, 1990), pp. 47~63. 등 참조.

25) 서재진 외, 「사회주의체제 개혁 개방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394~401.

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구조 형성에 관련된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 결정은 8차 5개년 계획기간중 중국경제개혁의 근간을 이루었다. 가격제도는 시장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조세제도의 개혁은 '세금 범위의 단순화·통합세율·경영개선'이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융체계는 상업은행과 중국인민은행²⁶⁾으로 나뉘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환율결정기구가 마련되었다. 이 기간중 국가의 계획은 시장체제와 연관지워지도록 만들어졌다. 강제적인 계획의 할당이 점차 축소되었고,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간접적인 통제로 전환되어 갔다. 그러나 중국의 8차 5개년계획기간중의 경제개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상충하는 문제점들을 동반했다.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²⁷⁾을 수반했으며, 농업부문의 문제²⁸⁾와 국유기업의 개혁문제²⁹⁾는 8차 5개년계

-
- 26) 중국인민은행은 정책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 27)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 1986~1990년의 기간에 가격상승은 매년 10.3~10.7%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추세는 1990년대 초반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1994년의 소비자가격은 24.1%가 인상되어 인플레이션의 해로 기록되었다.
- 28) 중국의 농업성장은 1985년 이후 다시 정체기로 접어들었으며, 제한된 경작면적과 농촌의 과잉인구가 주요원인이었다. 8차 5개년계획기간중 농촌에 대한 투자는 공업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농업과 공업간의 불균형성장으로 귀결되어졌다. 농업생산의 부진은 농업생산물의 부족과 식량가격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식량가격의 상승은 중국국내물가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 29) 8차 5개년 계획기간중 국유기업의 성장률은 비국유기업의 성장률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다. 같은 기간중 국유기업의 전체공업생산가치는 연 평균 8.4%가 상승했으나, 비국유기업의 경우는 30%에 달했다. 1994년의 경우 45.9%의 국유기업이 손실을 기록했으나, 성장한 곳은 14%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시범적인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조치들이 취해진 1996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96년 1~8월 사이 국유기업의 45.7%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실현이윤총액은 전년대비 -79.7%를 기록했다. 經濟日報, 1996. 11. 28. 최수웅, "중국의 96년 경제실적과 97년 전망," 『지역경제』, (1997. 1), p. 57에서 재인용.

획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았다.³⁰⁾

그러나 1996년의 중국경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에 대해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GDP가 전년 대비 9.7% 성장했으나 인플레이션은 한자리수(소매물가상승률 6.1%)에 머무는 ‘연착륙’을 이룩했다. 인플레이션의 억제에는 중국정부의 긴축적인 통화관리와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곡물부족현상이 작황의 호조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농민소득증가율(8.0%)은 도시노동자의 소득증가율(3.4%)보다 2배이상 높아졌다. 그리고 국유기업의 개혁도 시범기업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작단계로 접어드는 징후들을 나타냈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1997년도 경제정책의 주요목표로 1) 농업의 기초적 지위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촉진, 2) 국유기업 발전의 가속화와 기업의 경영효율 제고, 3) 경제의 구조조정과 중복건설문제의 점진적 해결, 4) 거시경제여건의 지속적 유지와 경제질서의 규범화, 5) 대외개방에 따른 무역과 외자이용수준의 제고 등을 제시함으로써 1996년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³¹⁾

경제개혁은 중국의 경제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 왔다. 첫째는 공적으로 소유된 기업들이 독립된 상품생산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정책결정권을 가진 기업의 경영자들이 행정기구내의 지위들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둘째, 과거 전적으로 국가소유였던 형태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다.³²⁾ 셋째, 자원의 할당과 분배가 계획과

30) Qing Ning, "China's Socio-Economic Progress: 1991-1995," *Beijing Review* (December 18-24, 1995), pp. 11~16.

31) 최수웅, "중국의 96년 경제실적과 97년 전망," 「지역경제」 (1997. 1), pp. 54~60.

32)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가능케 한 것은 도시와 농촌의 비국유부문의 발전이었다. 중국의 비국유부문은 향진기업(鄉鎮企業)과 외자기업, 그리고 합영기업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었으나, 이중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농촌의 비국유기업인 향진기업이었다. 농촌에 위치한 향진기업은 농민들에 의

시장조절간의 결합형태로 바뀌었다. 넷째, 중앙집중화된 명령경제에 의해서 시행되고 기업과 국가간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했던 경제정책이 정부의 기능을 재규정하고 책임소재도 보다 다층화된 형태로 변화했다. 다섯째, 부의 분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던 과거의 형태가 ‘기여한 바에 따른 분배’로 바뀌었다. 여섯째,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던 경제조직이 수평적인 구조로 전환되었다. 일곱째, 경제관리가 직접적인 방식에서 점차 간접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여덟째, 기업내부의 노동력과 고용에 대한 관리가 고용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는 형태에서 경쟁의 원리와 공개적인 채용제도 그리고 조직의 최적상태를 고려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국제적인 무역과 참여를 가능케 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새로운 상품경제의 틀 속에 놓이게 되었으며, 시장원리가 계획원리들을 점차 압도하게 되었다.³³⁾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시장화의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아직도 중국의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해서 설립된 다양한 비국유기업을 총칭했다. 향진기업의 전신은 과거 인민공사 및 생산대대가 설립, 운영하던 2, 3차산업인 사대기업(社隊企業)이었다. 이것이 1984년부터 확대되어 향정부가 설립한 향반기업과 촌민위원회에서 설립한 촌반기업, 사적소유에 속하는 연호기업(2명 이상의 농민이 설립한 기업), 그리고 순수한 의미의 사적소유인 개체기업까지 포함했다. 향진기업들은 독립적인 책임하에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기능했다. 농촌지역의 공업화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향진기업은 농촌의 과잉인구를 흡수했고, 소득수준을 높였으며, 노동집약적 수출에 기여하였다. 1979~1994년 사이 향진기업의 총생산액은 연평균 32.1% 증가했으며, 1994년에 기업수 2,495만개, 고용노동력 1억 2,018만명이었다. 또한 농촌사회의 총생산액의 73.7%, 그리고 공업생산액의 42.0%를 차지했다. 향진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서석홍, “중국의 향진기업: 그 발전과 성과 및 과제,” 「중소연구」, 20권, 1호, (서울: 중소기업소, 1996), pp. 123~168. 참조.

33) Shangquan Gao, *China's Economic Reform* (London: Macmillan, 1996), pp. 11~12.

효율도 낮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영기업 개혁문제는 중국 경제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재정적자의 절대규모도 아직은 비대하며, 물가안정의 근간이 되는 가격체계의 개선 역시 불안정하여 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실업인구도 증가추세에 있고, 발전으로 인한 수혜계층과 비수혜계층간의 사회적 격차도 커져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변화를 수반한 중국경제개혁은 다른 사회주의체제의 경제개혁과 체제이행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노튼(B. Naughton)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산업구조의 재편이 구체제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자유화정책이 안정화정책과 동시에 시행되지 않았으며, 안정화정책이 일정 정도 효과를 가져온 이후 자유화가 실시되었다. 이점이 동유럽 및 러시아의 개혁과 다른 점이었다. 둘째, 농업개혁이 공업개혁보다 선행된 것은 아니었으나, 농업부문에서의 성공은 빠른 속도로 괄목할 만한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국가의 독점적인 체제에 놓여 있던 영역들에 대한 새로운 참여가 허용되었다. 순수한 사유기업이 이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후원을 받는 집체기업들이 새로운 참여기업의 주류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국가의 독점적인 통제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넷째, 이중가격제도가 적용되었다. 다섯째, 계획을 통한 국가의 통제가 여전히 기능했지만, 기업에게 부여되는 목표는 절대적인 개념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는 점차 계획의 영향력을 벗어나게 되었으며, 국유기업도 시장지향적 특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³⁴⁾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특성들은 중국의 경제개혁이 'big bang'식의 체제전환을 경험하거나 시도했던 동유럽과 구소련권국가들의 그것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었다.

34) Barry Naughton, "What is Distinctive about China's Economic Transition, State Enterprise Reform and Overall System Transformation," pp. 473-474.

제IV장 러시아의 경제개혁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시기의 부분적 개혁, 고르바초프에 의한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1991년 말 이후 러시아 연방체제의 전반적이고 급진적 시장체제로의 이행기로 대별되어질 수 있다. 사실상 고르바초프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1985년 이전에도 소련경제는 보다 본질적인 구조전환을 요구받고 있었다. 소련의 붕괴는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발생한 것이지만³⁵⁾ 경제의 구조적인 침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사회주의 초기의 강압적인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급속한 경제성장은 점차 둔화되어 1960년대는 6%로, 1980년대는 2%대로 저하되고, 마침내 199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소련경제의 하향화는 계획과 행정-명령경제체제가 지닌 구조적인 결함의 산물이었다. 베셀코프는 소련경제의 와해를 초래한 구조적 결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³⁶⁾ 첫째, 기업들은 보다 적은 계획생산량을 할당받으려 노력했고, 반대로 보다 많은 장려금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둘째, 노동자들은 가능한 한 노르마(작업정량)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셋째, 과학-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기업들이 무감각했다. 넷째, 생산원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메커니즘은 낭비적이었다. 다섯째, 기업들이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여섯째, 발전과정에서 외연적 경제체제

35) Dallin은 소련의 붕괴가 통제의 이완, 부패의 만연, 이데올로기의 와해, 사회적 변화, 국제환경의 변화,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고르바초프 시기의 개혁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Alexander Dallin, "Causes of the Collapse of the USSR," *Post-Soviet Affairs*, Vol. 8, No. 4 (1992), pp. 279~302.

36) Ф. С. Весельков, "Нужная рыночная экономика". *Введение в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1), pp. 19~21.

를 내연적 경제체제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무관심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소련경제가 지닌 구조적 결함들이었으며, 이 문제들의 해소가 경제개혁의 주요 목표였다.

1.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

경제개혁은 고르바초프 이전의 시기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페레스뜨로이카 이전에도 경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몇 차례의 시도가 이루어졌다.³⁷⁾ 그러나 그것은 소련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을 결여한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본질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까지 행정-명령경제체제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1985년 당서기장에 취임한 이후 고르바초프는 소련체제전반에 걸친 재구조화와 개혁을 의미하는 페레스뜨로이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발전의 '가속화와 심화'가 강조되던 초기의 추세는 이후 경제개혁과 경제개혁의 보다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해주는 조건들의 마련으로 변화해 갔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과 민주화도 중요한 개혁목표로 등장했다. 고르바초프는 집권초기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기보다는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시도와 결부되어 변화에 대한 대중적

37) 사회주의 시기중의 경제개혁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는 Н. В. Воротил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предприятий в рыночном хозяйстве* (СПб, 1993), pp. 16~27. С. Н. Максимов, *Перестройка и проблемы 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форм*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2) 참조.

지지는 확산되었고, 고르바초프의 권력도 초기에 비해서 안정화추세에 접어들자 고르바초프는 보수파의 저항이 비교적 작은 부분부터 개혁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의 목표는 과도한 중앙집중화를 완화하고 생산과 노동자, 소비자들에 대한 자극체계로서 화폐와 가격이 작동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계획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시장거래의 합법화와 성장, 사적 혹은 협동조합을 통한 거래의 증가, 생산단위에 대한 권위 부여, 그리고 기업운영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³⁸⁾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계획경제의 기본적인 틀 내에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기구와 각 부의 기능을 축소하면서도 중앙집중적인 계획경제의 중요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시장이 투자의 방향과 비율을 결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결정도 대부분 행정-명령경제체제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또한 기업의 파산과 노동자의 해고는 노동조합과 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구체제의 유산들을 제거하려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고르바초프 정부는 집권 이후 2년동안 몇 가지 점진적 경제개혁조치들을 취했다.³⁹⁾ 첫 번째는 경제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행정체계를

38) David Lane, *Soviet Society under Perestroika* (Boston: Unwin Hyman, 1990), p. 38. 고르바초프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С. Н. Максимов, *Перестройка и проблемы 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форм*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2), pp. 141~182, A. Aslund, *Gorbachev's Struggle for Economic Reform* (Ithaca, 1991). David A. Dyker, *Restructuring the Soviet Economy* (Routledge, 1991), pp. 79-102, Martin Mccauley, eds., *Gorbachev and Perestroik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폴 그레고리 & 로버트 스튜어트,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연합 경제의 구조와 전망」, 한중만 외 역 (서울: 열린책들, 1992), pp. 576~600.



재조직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서 각 부서들은 통합되거나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도록 재구성되었다. 예를들어 다섯 개의 농업관련 부들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유사한 조치들이 국가의 경제관리조직들에 대해서 행해졌다. 두 번째 조치들은 기업과 지역에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기업재무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또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농민들이 계약체계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국가에 공급한 다음 나머지를 시장에 팔 수 있게 되었다. 25개 기업과 부서들이 시장의 원리에 기초해서 해외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얻었다. 세 번째 조치들은 소유권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바꾸는 일이었다. 사적인 개인기업과 협동조합들이 허용되었고, 외국자본과 합작기업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은 완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것이었으며 경제체제를 의미있는 수준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고르바초프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

1987년 이전까지는 고르바초프가 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⁴⁰⁾ 이와 같은 초기의 개혁조치들의 수준을 넘어 경제개혁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87년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전후해서였으며, 여기에서 고르바초프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했다.⁴¹⁾ 1987

39) Tatsuo Kaneda, "Gorvachev's Economic Reform," Peter Juviler, Hiroshi Kimura, eds., *Gorvachev's Reform* (Aldine De Gruyter, 1988), p. 84.

40) 폴 그레고리/로버트 스튜어트,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연합 경제의 구조와 전망」, 한중만 외 역, (서울: 열린책들, 1992), pp. 578~579.

41) 1987년 6월 25일과 26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비판을 받아들였다. 전체회의는 그 동안의 경제개혁의 결과가 '부분적이고 미미'했으며, 따라서 경제체제는 아직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진부한 계획과 행정체제에 의해서 지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년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의 주요내용은 독립채산제를 포함하는 기업의 자율성 확대, 경제운영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 가격·금융제도 개혁, 새로운 조직구조 형성, 그리고 민주적 관리체제 형성 등이었다.⁴²⁾ 이를 위해서 기업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계획할당량을 줄여 기업지배인들의 자율성의 여지를 확대시켜 주는 한편 적자기업의 도산을 인정하는 ‘국영기업법’을 발효시켜 기업경영의 책임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협동조합법’과 ‘개인영업법’을 통해서 소유권의 다양화를 법제화했으며⁴³⁾, ‘합영기업법’은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구체적인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태는 개선되지 못했다. 새로운 조치들에 익숙하지 못한 소련경제는 상당한 혼란을 겪었고, 물자부족상태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조짐들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1990년 7월의 28차 당대회 이후 전면적인 경제개혁내용을 포함하는 개혁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사탈린개혁안⁴⁴⁾으로 불리는 이 개혁안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구

전체회의는 ‘경제관리의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성있는 체계’의 형성을 위한 ‘급진적 개혁’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한 조치들을 채택했다. Tatsuo Kaneda, "Gorbachev's Economic Reform," Peter Juviler, Hiroshi Kimura, eds., *Gorbachev's Reform* (Aldine De Gruyter, 1988), p. 85.

42) A. Aslund, *Gorbachev's Struggle for Economic Reform* (Ithaca, 1991), pp. 34~35.

43)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 부서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인 동시에 시장관계를 증진시키고 소유권관계의 다양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적거래에 대한 권리들이 개인들과 ‘협동조합’에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가 허용되는 부문들은 세밀하게 규정되었으며, 고용노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개혁에 의해서 자극되는 새로운 경제활동은 가족단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협동적 형태의 소유권은 1988년까지 19,539개였으며 245,700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협동조합장려정책이 시행된 이후인 1989년 4월의 경우 협동조합부분은 99,330개로 늘어났으며 1백 9십만 명가량이 종사했으며, 이수치는 1989년 여름 약 3백만명에 이르렀다. David Lane, *Soviet Society under Perestroika*, pp. 38~39.

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으며, 이전에 비해서 매우 급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샤톨린안을 대폭수용한 고르바초프의 개혁안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되지 못했으며, 최고회의는 대통령안, 샤톨린안, 르이지코프총리체제가 만든 정부안을 고려하여 타협안을 만들도록 했다. 그 결과 아간베기안을 의장으로하는 '시장경제 이행 대책 평가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동위원회가 작성한 안을 고르바초프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최고회의에서 채택되었다.⁴⁵⁾ 그러나 최종안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반대를 고려했기 때문에 개혁요소가 샤톨린안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된 것이었고, 따라서 1년후 권력을 상실하게 될 고르바초프로서는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개혁안들의 작성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련경제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고르바초프가 경제개혁을 구체화한 1987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상실한 1991년 말까지의 경제지표들은 악화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GDP는 1988년 5.5%에서 1991년 -13%로 하락했으며, 자본축적율도 1988년 0.9%에서

44) 500일 계획이 직접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이 계획은 개혁주의자들의 개혁에 대한 급진적인 사고를 나타내고 있다. 샤톨린, 아블린스키, 페트라코프등 개혁파 경제학자들이 공동작성한 500일 계획안은 4단계로 나누어져 있었다. 1단계는 특별조치프로그램(1990. 10. 1~1991년 초의 100일간), 2단계는 가격자유화와 엄격한 예산제약, 3단계는 시장안정화, 4단계는 약진의 시작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500일간의 조치들을 통해서 급속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기초를 완성한다는 것이었다. Yablinsky G., Fedorov, B. 1991. *500 Days Program*. 한중만 역 「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서울: 열린책들, 1991). 참조.

45) 최종안은 약 2년의 기간과 4단계를 거쳐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1단계의 주요목표는 재정적자 축소, 토지개혁, 대외경제 안정화 등의 추진이었다. 2단계는 건축재정과 중소기업의 민영화를 실시하며, 1/3은 국가의 가격통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가격을 자유화하는 조치들을 포함했다. 3단계에서는 시장형성을 목표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며,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경제독점금지, 루블화의 태환성부여, 외국자본우대조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재진 외, 「사회주의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pp. 148~154.

1991년 -23%로 급락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1988년 11%에서 1991년 128%로 증가하여⁴⁶⁾ 이후의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⁴⁷⁾ 또한 이와 같은 추세속에서 고르바초프는 샤탈린안이 거부된 1990년 10월 이후 권력을 상실한 1991년말까지 보수파들의 저항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70여년을 경과한 소련체제의 급진적인 변화를 위한 토양을 마련했고, 이후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 단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한 채 1991년 8월의 쿠데타를 계기로 끝나고 말았다. 보다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했던 엘친의 급부상과 소연방의 해체는 소련체제의 공식적인 종말을 의미했다. 소연방이 해체된 1991년 12월 고르바초프는 사임했고, 이제 개혁은 공식적으로는 독립된 각 공화국들의 책임하에 놓여졌다.

2. 러시아 연방의 경제개혁

가. 가이다르 총리체제의 급진적 개혁

엘친은 1991년 1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연방 인민대표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전의 페레스뜨로이카와는 다른 급진적 경제개혁의 의도를 나타냈다.⁴⁸⁾ 또한 91년중에 이후 경제개혁을 주

46) 인플레이션은 1990년까지 비교적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왔으나 1991년 4월의 부분적인 가격개혁 이후 급속히 악화되었다.

47) Грасильщиков, В.А., и др., *Модернизация: Зарубежный опыт и Россия*, (Москва: Агентство Информат, 1994), pp. 81~83.

48) 엘친은 이 연설에서 다소 불분명한 형태이지만 향후 추진하게 될 급진적 경제개혁의 기본구도를 언급했다. "...우리는 이제 경제의 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업가와 기업의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사람들

도하게 될 가이다르⁴⁹⁾ 경제팀에 의해서 경제개혁 정책의 골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 초에 시작된 러시아의 개혁은 90%에 이르는 품목들의 가격통제 해제, 화폐의 평가절하, 그리고 GDP의 31%인 국가재정적자를 1992년 1/4분기중 1.5%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1992년 1월의 가격자유화를 시작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경제구조개혁 등의 급진적 경제개혁을 시작하게 된다.⁵⁰⁾

엘친의 경제개혁진영은 러시아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의 판단은 급진적인 자유화정책의 시행만이 시장형성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격자유화는 재정안정화정책과 함께 가이다르 경제개혁정책의 근간이었다.⁵¹⁾ 가격자유화는 우유와 빵 등의 필수식품,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몇 가지 중요 품목들을 제외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단행되었다. 1992년 3월 이후에는 비록 반독점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들이 얻은 결과들을 향유하게 해야 하며, 관료주의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개혁은 몇 가지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동시에 진행될 것이며, 복합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안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긴축적인 통화와 재정, 신용정책이 실시될 것이며, 세금제도의 개혁과 루블화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처방은 가격을 자유화하는 것입니다. 가격자유화 없는 시장은 쓸모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사유화로서 이는 강한 사유부문을 지닌 건강한 혼합경제를 의미합니다...." *FBI, Soviet Union*, 29. 10. 1991, pp. 46~48.

- 49) 시장경제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진 가이다르는 엘친의 집권과 함께 총리가 되어 초기에 실시된 급진적 개혁정책의 실시를 주도했다.
- 50)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의 침체는 러시아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었으며, 1991년의 쿠데타로 인한 강경 보수파들의 몰락은 엘친의 개혁진영에 대한 정치적 저항세력의 일시적인 소멸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1992년초 엘친진영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급진적 경제개혁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 51) 가이다르의 자유화정책에 대해서는 Yegor Gaidar & Karl Otto Pohl, *Russian Reform/ International Money* (Cambridge: The MIT Press, 1995). 2장 "Liberalization" 참조.

몇몇 부분에 대한 가격통제가 지속되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분야에서의 가격통제가 해제되었다. 이는 러시아인들이 이전의 체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경제상황의 전개였으며, 급격한 물가 상승국면이 이어졌다. 가격자유화 시행 직후 인플레이션은 245%에 달했다. 1992년 여름 이후 1994년의 겨울까지 인플레이션은 월 평균 20%를 넘었다. 따라서 1995년 인플레이션이 월 10% 이하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이후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러시아인들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졌다.⁵²⁾ 또한 1992년 1월부터 상업활동의 자유화 조치들이 발표되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상업활동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외무역의 자유화 속도는 이 보다 늦어졌다. 그것은 아직 부분적인 가격통제(특히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무역의 자유화는 국내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유화조치들은 안정화정책에 의해서 균형을 잡도록 되어 있었다. 안정화정책의 주요 방법으로는 재정과 금융정책을 긴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 국방비와 기업의 손실을 만회해 주기 위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긴축재정책이 중요하게 이용되었으며,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중앙은행의 금융정책도 엄격하게 운용했다.⁵³⁾ 따라서 1992년 러시아개혁의 초기 몇 달간의 재정적자는 급격

52) J. H. Cochrane and B. A. Ickes, "Macroeconomics in Russia, E. D. Lazear,"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Hoover Institute Press, 1995), pp. 69~70.

53) 가이다르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택했다. 첫째는 군사부문의 지출을 급격히 줄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가이다르는 군사부문의 발주를 70% 감축시키기로 결정했다. 둘째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일이었다. 가이다르는 1991년말 GDP의 15%에 달했던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산물이었던 보조금의 삭감은 타성에 젖어 있던 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가이다르는 이를 유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가

히 줄어들었다.⁵⁴⁾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 주요 이유는 구체제의 저항 때문이었다.⁵⁵⁾ 가이다르는 1992년 5월 자신의 총격요법에서 후퇴했다. 1992년 후반부에 들어서 정부지출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재정상태의 개선속도도 둔화되었다.⁵⁶⁾ 결과적으로 발생한 초 인플레이션은 저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고,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내외로부터의 투자를 약화시켰으며, 신용체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⁵⁷⁾

1992년 여름 엘친의 개혁진영은 대규모의 사유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전에도 사유화의 조치들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이다르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1992년 6월 2일 28%라는 높은 세율의 부가세를 도입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던 중앙은행을 보다 긴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통화량의 팽창을 막으려 시도했다. Yegor Gaidar & Karl Otto Pohl, *Russian Reform/ International Money*, pp. 29~35.

- 54) 가이다르는 이를 다소 과장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재정상태의 개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1992년 첫 번째 몇 달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20%에서 거의 0에 가까운 정도로 축소되었다.” *Ibid.*, p. 32.
- 55) 이미 1992년 5월과 6월에 가이다르는 개혁을 초기의 형태로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순수한 경제적 요소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들이었다. 경제개혁은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군수품 조달물량을 삭감함으로써 발생하는 군산복합체들의 저항, 보조금 삭감에 대한 농업부문의 로비, 긴축 통화 정책과 세금인상에 대한 공업부문의 저항, 투자축소 문제, 예산지출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구체제의 저항에 있어서 공산주의세력이 지배적이었던 당시의 의회는 국유기업들의 주요로 비경로로 이용되었다. *Ibid.*, pp. 36~37.
- 56) 1992년 2/4분기중 재정적자는 GDP의 11%로, 3/4분기중에는 15%로 늘어났으며, 통화관리의 균형도 잠식당했다. 1992년 6월까지 중앙은행의 화폐공급은 700억 루블이었으나 10월에는 4조 루블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은 2000%에 이르렀고 따라서 가격통제 해제의 진행과정을 왜곡하고 약화시켰다.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수반되지 않은 미시경제의 자유화는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웠다. Wing Thye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pp. 277~278. 참조.
- 57) T. Colton, et al., “Five Years after the Collaps of the USSR,” *Post-Soviet Affairs*, No. 13 (1997), p. 16.

전체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1992년의 사유화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⁵⁸⁾ 특히 1992년 10월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사유화(mass voucher program)가 실시되었다.⁵⁹⁾ 이와 같은 대중적인 사유화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1994년 7월까지 모든 공업부문과 서비스산업의 70%가 사유화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급속한 사유화는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⁶⁰⁾. 양적인 사유화의 성공은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유화된 기업의 절반가량이 이윤을 내지 못했으며, 러시아 공업생산력의 50%가 감소했다. 또한 국가소유체제의 해체는 경제의 범죄화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⁶¹⁾

따라서 1992년 초기 가이다르 경제팀의 자유화·안정화·사유화를

-
- 58) 예를 들어 1990년 7월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을 사적 소유, 협동적 소유, 국가 소유로 구분하고 있었다. 또한 90년 6월의 ‘기업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협동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기업에 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었다. 1991년 6월의 ‘기업의 사유화와 탈 국유화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은 임대기업, 집체기업, 합작기업 등으로 전환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었다. Morris Bornstein, "Russia's Mass Privatisation Programme,"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6, No. 4 (1994), pp. 421~422.
- 59) 바우처 사유화는 전 사회구성원들에게 일정정도의 금액(1인당 만루블)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무상 발행하고 이를 이용해서 해당금액 만큼의 기업과 국유재산의 주식이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중적 방식의 사유화이다.
- 60) 대중적인 사유화의 경제적 목적은 기업의 효율성 제고, 경쟁체제 구축, 외부투자의 유인, 경제재구조화 촉진, 예산절감과 사유화 수입을 통한 재정의 안정화, 그리고 이러한 효과들을 통한 인플레이션의 안정이었다. 또한 정치적 목표는 사유화를 통해서 전통적인 소비에트형 경제체제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사유화를 통해 시장지향적이고 개혁을 지지하는 소유권자들을 형성하고, 기업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제한함으로써 각 경제에 대한 정부부서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Ibid.*, p. 423.
- 61) 러시아 거대자본의 상당수가 지하경제와 투기 뇌물, 국가재산의 절취를 통해서 형성되었다. 러시아 내무부는 1993년 중반 4만개의 기업이 범죄적 구조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기업의 경우 70-80%가 범죄집단과 부패관료에게 상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vetlana Glinkina,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pp. 56~61.

위한 급진적 개혁조치들은 의도했던 결과들을 얻지 못했다. 개혁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자 국민불만의 증폭을 배경으로 반대파들의 저항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가이다르 총리체제는 개혁에 대해서 보다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체르노메르딘⁶²⁾체제로 교체되었다. 당시 옐친정부는 체르노메르딘을 급진적으로 진행되어온 개혁의 완급을 조정하는 ‘관리형’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즈프롬’의 대표를 총리에 임명함으로써 거대 국유산업 등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보수세력들의 저항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려 했던 의도도 포함하고 있었다.⁶³⁾ 이후 현재까지 체르노메르딘체제는 전반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개혁정책의 집행은 완만하게 시행하고 있다.

나. 체르노메르딘 총리체제와 급진적 개혁의 완화

체르노메르딘 총리의 등장에 따라서 가이다르식의 급진적 개혁은

-
- 62) 총리로서 1995년부터 「우리집 러시아」당을 이끌고 있는 체르노메르딘은 경제관료의 길을 충실히 걸어 왔으며, 따라서 개혁에 대해서 점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체르노메르딘은 1986~1990년 사이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니콜라이 루지코프 정부에서 석유·가스산업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야블린스키의 급진적인 시장경제체제 도입계획인 ‘500일 계획’에 반대했다. *Moscow News*, No. 35 (September 8~14, 1995). 체르노메르딘은 1989년 이후부터 러시아 최대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국영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63)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정치구도,” 동북아, 제 5집, 1997. p. 201. 1992년 말 구 사회주의체제의 기업지배인들에 의해서 지배된 의회는 개혁추진세력인 가이다르총리를 관료출신인 초르나메르딘으로 교체했다. 따라서 초르나메르딘총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 러시아시장경제의 주역이 될 소규모 자생적인 기업들보다는 구체제가 양태한 자신들의 존재기반인 거대국유기업들이었다. 그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자신의 이끌고 있는 석유와 가스공업부문에 200억불의 저리융자를 제공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가의 재정적자로 직결되는 일이었다. Wing Thy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pp. 288~290.

사실상 끝나게 되고, 오히려 일부영역에서는 긴축기조를 완화시키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산업부문들에 대한 정부대출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임금인상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대국민 선심용 공약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화폐발행을 남발했다. 이는 안정화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상정되었던 통화팽창 억제조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⁶⁴⁾ 1993년 7월에는 화폐개혁이 단행되었으며, 8월에는 ‘개혁의 발전과 러시아 경제의 안정화안’을 채택하여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 안은 경제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1)국영 및 지방자치체소유 기업의 사유화, 2) 방위산업 채권발행의 조건 변경, 3) 자원의 국가분배체제, 예비금 적립, 국가주문 및 지정가격의 폐지, 4) 시장구조 및 운영원리에 입각한 생산기자재 판매시장의 형성, 5) 독점의 폐지와 자본주의 방식에 따른 상품의 자유판매, 6) 엄격한 금융정책, 7) 인플레이션에 영향 받지 않는 항구적인 세원확보, 8) 대외경제활동의 자유화와 개방, 9) 가격의 자유화 등을 제시했다.⁶⁵⁾ 1994년 7월에는 제2차 사유화프로그

64) “1992~1993년간 정부는 중앙은행의 가장 큰 채무자로 전락했다. 정부가 발행한 단기국가채권은 예산적자의 2%만을 증당했고, 나머지는 중앙은행의 특별대출에 의존했다. 또한 1992년 1.5조 루블이던 신규통화발행이 1993년에 10.1조 루블로 증가했으며, 총통화량에 대한 비율도 24%에서 37%로 늘어났다. 재정체제의 붕괴, 중앙과 지방의 예산전쟁, 지불위기, 부당한 화폐발행이 모든 화폐유통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부, “러시아의 사회-경제개혁: 현상환과 새로운 접근법,” 「중소연구」(1994 여름호), p. 256.

65) “1991~1993년도 러시아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결과,” 「러시아연구」 No. 2 (서울: 대륙연구소, 1994), pp. 181~182. 이와 같은 체르노메르딘의 경제정책안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1단계는 1994년 상반기까지로 가격통제의 범위를 GDP의 3~5%로 축소, 국가구매는 20%선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재정적자도 GDP의 8-10%로, 인플레이션은 월 5~7%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안정기인 2단계는 1994년 하반기부터 1995년 까지이며 국민의 생활수준향상과 대규모사유화의 주요목표달성, 효율적인 금융제도의 도입 등이 목표로 상정되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는 성장기로 잡혀 있었다이창제, “러시아 경제체제전환 시도에 대한 평가,” 「러시아 새질서의 모색」(서울: 열린책들, 1994), p. 121.

램을 실시하여 내부자 사유화(insider privatization)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상태는 개선되지 못했다.⁶⁶⁾

러시아 정부는 1995년 3월 새로운 3개년 경제개혁프로그램을 확정했는데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투자촉진, 그리고 생산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은 러시아 정부의 중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히는 것으로서, 1992년 가이다르 총리내각의 급진적인 경제개혁프로그램, 1993년 말 긴축완화 프로그램 이후의 세 번째 개혁프로그램이었다. 이는 1993년의 경제개혁프로그램이 재정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결국 거시경제안정화를 위해서는 긴축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⁶⁷⁾

1996년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다소간의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이유는 6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가 개혁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도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업분야의 이익집단들은 보호주의무역과 국가보조금 지급을 원한 반면, 금융분야의 이익집단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를 원했다. 따라서 개혁의 효율성보다는 재선을 위한 대국민 선심성 공약이 우선되었고, 산업분야의 이익집

66) 1994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부의 공동보고서는 1991~1993년간의 개혁이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은 실패했다. 상정된 개혁의 목적과 정부의 예측 중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둘째, 경제붕괴로 연결되는 경향이 생겨나 강화되어 가고 있다. 셋째, 안정화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개혁의 선택노선 및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가격자유화와 재정안정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의 사회-경제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부, "러시아의 사회-경제개혁: 현상향과 새로운 접근법," pp. 253~254.

67) 이 프로그램은 IMF로 부터의 차관도입(차관은 인플레이션의 유발없이 러시아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안정화정책에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다), 민간투자촉진, 투기성 자금의 산업자본화, 세금제도의 간소화방안 등을 담고 있었다. 이철원, "러시아의 최근 경제현황," 「지역경제」(1995. 5), pp. 87~88.

단들과 금융분야의 이익집단들의 긴장관계는 일관성있는 경제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⁶⁸⁾

경제개혁조치들로 인해 1995년의 경우 러시아 GDP의 3/5 이상⁶⁹⁾ 혹은 55%⁷⁰⁾가 비국유부문으로부터 산출되었다. 또한 1995년 말과 1996년 초에 걸쳐서 러시아가 체제전환기에 발생하는 경기하강국면의 마지막 단계에 근접했으며, 이후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징후들이 나타났다. 빈곤선 이하의 생활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33%에서 25%이하로 감소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12%에서 -19%까지 하락했던 GDP의 하락추세도 1996년에는 전년 대비 -3%로 추산되는 등 점차 안정추세를 나타냈으며, 초인플레이션도 안정되었다. 또한 루블화와 경화와의 교환비율이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1996년 1월에서 8월까지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수입은 12%가 증가했으나 실제 소비는 이보다 작았으며, 이는 러시아에서 저축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1995년과 1996년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매우 긴축적이었으며, 인플레이션은 매월 1%이하로 유지되고 있는바, 이는 IMF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수치이다.⁷¹⁾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 경제개혁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 의미가 제한되어진다.⁷²⁾ 러시아가

68) Peter Rutland, "Another Lost Year for the Economy," *Transition*, No. 7 (February, 1997), pp. 78~81. 참조.

69) 러시아측의 통계.

70)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통계.

71) T. Colton, et al., "Five Years after the Collaps of the USSR," pp. 14~17.

72)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동유럽 국가들이나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보다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기타 아시아의 CIS권 국가들에 비해서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성공적인 편이었다. P. Hanson, "What Sort of Capitalism in Russia,"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9, No. 1

가지고 있는 비경제적인 문제들은 정치적 불안과 범죄, 그리고 부패 등을 들 수 있으며, 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러시아경제의 국제적인 신용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1995년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투자는 총투자의 2.8%에 그쳤다. 경제적인 문제들은 보다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첫째로 러시아의 GDP는 1989년에서 1996년 중반까지 약 48%가 하락했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다는 점이다. 1996년 중반기의 소비자 가격 지수는 1995년 중반에 비해서 50% 정도 높았다. 셋째, 대규모 사유화(large-scale privatization)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1994년말까지 러시아의 공업부문 노동자의 83%가 정부가 일부의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화가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⁷³⁾ 넷째, 산업부문간의 구성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따라서 생산부문인 농업과 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 감소한 반면, 운송과 커뮤니케이션, 국내 거래, 기타 서비스부문의 비율은 급증했다.⁷⁴⁾ 다섯째, 생산의 감소에

(1997), pp. 27~29.

73) 사유화 실시 이후 대다수의 기업들은 해당기업의 노동자와 지배인들에게 주식의 51%를 소유하게 허용하는 안을 선택했다. 이는 기업사유화의 지배적인 형태가 내부자 사유화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명목상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통제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배인들에 의해서 행사되었다. 이와 같은 내부자사유화는 사유화의 중요한 목표인 경제구조재편과 외국 자본의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새롭게 형성된 시장압력하에서 상당수 기업의 경영진들이 신기술과 자본의 도입을 위해서 외부로 눈을 돌렸으며, 노동자와 기업지배인들의 공동소유형태 비율도 작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996년 초까지도 러시아의 대다수 기업들은 내부자사유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T. Colton, et al., "Five Years after the Collaps of the USSR", p. 17.

74) 이와 같은 점들은 러시아에 형성되고 있는 시장이 상당 정도 기형성을 띠고

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변화와 실업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실질임금의 하향화와 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범죄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관료들의 부패는 만성화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의 최종적인 평가는 아직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있다는 점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개혁초기 부터 매점 매석과 중개차익을 노리는 경제행위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생산부분의 잠재력을 잠식했다. 예를 들어서 1992년 6월에서 1993년 4월간의 은행대출실적에 따르면 생산부분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간거래를 위한 대출은 45%에서 75%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Vladimir Kollantai, "Social Aspects of Economic Reform in Russia," *Eastern Europe in Crisis and Way out* (London: Macmillian, 1995), p. 389.

제 V 장 양국의 경제개혁과정 비교

1. 출발조건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개혁은 각기 상이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⁷⁵⁾ 러시아와 동유럽권의 국가들은 체제전환이 시작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공통된 출발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소비에트제국과 권력의 붕괴라는 점이다. 둘째, 동유럽국가들간, 구소련연방국가들간에는 사회주의 시기동안 형성된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들은 구조적인 재조정과 안정화를 수반하는 체제전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소련의 경우 공화국간의 분업화된 경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소연방의 해체는 이와 같은 분업체제의 단절을 가져왔고 따라서 상당한 경제적 혼란을 경험했다. 셋째, 장기간 수입대체와 계획경제정책의 운용 결과 폐쇄적 의존적 경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문화혁명은 중국의 통합된 당-국가체제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소련과 같은 형태의 중앙통제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또한 경제적인 통제도 지역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었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 탈중앙화는 러시아의 경우보다 용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건속에서 중국은 자체내에서 해안 경제특구의 대외개방 등 다양한 대안체제를 시험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르는 특별한 정치적 비용과 경제적 해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다.

75)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pp. 53~54.

개혁초기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정도와 방향성의 설정도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었다. 러시아의 경우 시장경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지는 경제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인이었다.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가능성은 시초부터 고려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체제전환의 파괴적인 특성을 피할 수 없었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폐지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없었다. 따라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급진적 경제개혁조치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다.⁷⁶⁾

구사회주의권의 시장경제체제로 향한 개혁방식의 선택과 진행과정은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개혁의 출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경제체제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은 크게 사회주의체제의 완결성의 정도, 경제의 중앙집중화의 정도, 소유권제도의 형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수준 등이며, 그리고 경제체제개혁으로 인한 정치적 재조정의 결과도 다시 경제체제개혁과정과 노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⁷⁷⁾ 우선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사회주의 체제의 완결성과 발전정도⁷⁸⁾는 국가마다

76) “중국의 지도자들중 가장 적극적인 개혁론자들조차도 개혁의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의 명령경제체제가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으나, 미국식 자유시장경제가 중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실험적인 시도와 진화적 발전을 통해서 시장과 계획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의가 있을 뿐이었다.” P. Nolan, *China's Rise, Russia's Fall*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 170.

77) Minxin Pei, “Microfoundations of State-Socialism and Patter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pp. 135~143.

78)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개혁을 시도했을 당시 두 나라는 발전 정도상 서로 다른 입장에 있었다. 중국인구의 75%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러시아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정도가 매우 높은 공업국가였다. 1986년 러시아의 도시인구는 중국의 농촌인구의 수치와 비슷한 72%였다.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1994), p. 17. 산업화와 도시화 같은

정도가 달랐고,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본격적인 시장체제로의 개혁조치들에 대한 반응의 차이로 나타났다. 사회주의체제가 발달된 국가일수록 경제의 중앙집중화가 크며, 제도들간의 상호의존성이 크지만, 그 반대의 경우 다중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지닌 경제조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중앙집중의 정도차이가 경제적인 자극과 실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집중화가 발달될수록 기업간, 지역간의 의존성이 크며, 생산이 고도로 중앙집중화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사회주의의 제도가 발달하고, 통합력을 발휘하는 국가일수록 기업과 개인들은 시장요소에 대한 반응이 적으며,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적응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이유들로 소유권의 형태가 국가소유형태로 단일화되어 있던 국가들보다 다양화되어 있던 국가들(국가소유가 지배적이지만 비국가 소유제인 사적 혹은 집단적 소유형태가 농업과 비농업부분에서 의미있는 정도로 허용되어 있는)이 체제전환에서 유리한 측면을 가진다. 또한 사회주의복지체제의 발달정도도 경제체제전환에 영향을 미친다. 발달된 사회복지체제를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의 중심부국가들은 이 체제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복지체제의 축소를 경험한 사람들은 경제개혁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는 것이다.⁷⁹⁾ 결과적으로 사회주의화가 고도로 진행된 러시아의

발전정도의 차이는 중요하다. 이는 정부의 통제형태와 유관하며, 개인주의, 세속주의, 정치적 저항,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과 관계가 있다.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pp. 55~56.

79) 따라서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의 중심부국가들의 체제변환에서 사회보장체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체제의 수준이 형가리의 절반에 불과했던 중국의 경우 전통적 대가족제도가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조건은 중국개혁의 유리한 자산인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GDP성장과 자본축적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잠식하는 인구증가와 지역간 격차의 발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사회주의화가 러시아에 비해서 지체된 중국의 경우 탈사회주의화에 필요한 비용은 더 작게 발생하게 된다.

성장형과 후퇴형 체제전환은 서로 다른 정치적 구조재편을 가져온다. 급진적인 체제전환전략을 시행한 국가들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 비용은 개혁입안자들의 책임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중도좌파가 중심적인 정치세력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을 내세우며, 사회주의의 복지적 특성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의 경제개혁과정의 부정적 특성이 부각됨에 따라 경제개혁에 비판적인 좌파와 민족주의세력이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반면 중국의 지도부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개혁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고, 급격한 정치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주요정책의 비교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개혁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경제개혁의 방향성으로 두 나라 모두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⁸⁰⁾ 두 번째는 두 나라 모두 경제개혁

생은 정치적인 안정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동유럽에 있어서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는 성장에 중·단기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바로 이와 같은 '부담스러운' 사회보장제도의 존재는 시장경제체제로의 급진적인 정책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사회보장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만 하는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Ibid., pp. 56~57.

80) 물론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표현이 나타내주고 있듯이 시장경제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러시아에 비해서 상당히 은유적이다.

의 시행과정에서 사회주의의 지배적인 국유산업을 독립적인 상품생산자로 전환시키거나 시장경제체제로 편입시키는 것 등과 같은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구조적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혁정책의 경로와 방법이 다르게 시행되었다. 러시아는 시장과 공산당의 병존가능성을 부정했지만 중국은 이 두 가지가 반목하지 않고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러시아에 있어서 공산당과 방만한 기존의 국가기구들은 경제개혁의 장애물로 인식되어졌으며, 따라서 정치개혁이 먼저 선행되었다. 따라서 장애물인 공산당이 권력으로부터 배제될 때 경제개혁은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는 정치개혁에 많은 힘을 쏟아 붓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그것은 정치개혁이 성공하면 경제개혁도 따라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중국은 우선적인 개혁이 경제부분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은 점진적인 여러 가지 경제개혁의 조치들이 공산당의 지도하에 현존하는 국가기구들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겼고, 공산당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개혁의 조치들을 시행할 강력한 지도력과 기구들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중국 역시 정치개혁이 경제개혁과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개혁은 경제개혁과 연관된 구체적인 부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부는 만일에 지도자들이 권력투쟁에 몰입해 있다면 경제개혁은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경제개혁의 지지를 위한 대중적인 동원화의 방법에 있어서 고르바초프와 같은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에 의존하는 반면 중국은 경제발전과 삶의 질의 개선을 약속했다. 중국과 같이 대규모의 인구나 불평등한 발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민

주화는 경제개혁실행의 일반적인 방법이라기 보다는 경제개혁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체제전환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태도의 차이를 가져왔다. 러시아는 국가의 역할을 너무 빨리 약화시켰지만 중국의 국가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경제에 대한 조절능력을 행사하고 있다.⁸¹⁾

러시아와 중국에 있어서 개혁의 돌파구는 서로 다른 처방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가격자유화를 경제개혁의 돌파구로 사용했다. 따라서 1992년 2월까지 러시아는 소비재의 90%와 자본재의 80%를 가격 자유화시켰고 그 결과는 초인플레이션현상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중국은 농업이 경제의 주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후진적인 농업부분의 개혁을 돌파구로 삼았다. 중국의 농업개혁은 농민들에게 농업생산에 있어서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촌락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삼았다. 점진적인 농촌의 발전은 전체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⁸²⁾ 중국과 달리 러시아에서 농업개혁은 공업개혁보다 우선순위를 지니지 않았다. 소련체제에서 농업부분은 국영농장, 집단농장⁸³⁾, 그리고 텃밭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의 사영경작지⁸⁴⁾로 이루어져 있었다. 농업부분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81) Jingje Li,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nd Russian Economic Reform,"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pp. 309~313.

82) *Ibid.*, pp. 309~313.

83) 선거로 임명되게 되어 있는 집단농장의 지배인적도 관료적인 방식으로 임명되었으며, 실제적인 운영은 국영농장과 크게 다를바가 없었다. David Lane, *Soviet Society under Perestroika*, p. 45.

84) 텃밭은 경작자의 소비 뿐만 아니라 농민시장에서 판매를 위해서 이용되었으며, 그 규모는 매우 작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텃밭의 생산성은 매우 높았다. 1985년의 경우 감자의 60%, 다른 야채와 고기의 32%, 계란의 30%, 그리고 우유의 29%가 개인 경작에 의해서 생산되었다. Hedrick Smith, *The New Russians* (New York: Random House, 1990), p. 209.

전략은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사기업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임대와 계약관계의 도입이었다. 이는 형태적으로는 중국의 농가생산책임제와 유사했다. 농민들은 일정기간 토지와 장비를 임대하여 경작하고 계약된 생산물 이외의 초과생산분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까지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미미했다(1987년 대비 1989년의 농업생산은 단지 0.7%가 증가하는데 그쳤다).⁸⁵⁾ 그것은 농업부분에 대한 개혁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1988년 공업과 사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부분의 서비스부분들이 상당한 자율성을 획득했으나 농업부분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농업부분에서 각 부서를 통합하는 단일 부서를 만들어 농업부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는 농민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조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농업문제의 해소가 아니었으며, 문제의 심화였다. 또한 새로운 시도인 농민 ‘계약제도(contract brigades)’도 단지 실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확산되지 못했다. 이외에 농업부분개혁을 두려워하는 관료들의 기득권유지 노력과 이들에 의해서 과장된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파산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도 농업개혁을 저해하는 요소였다.⁸⁶⁾ 결국 고르바초프의 개혁기간중 농업개혁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1992년 이후의 본격적인 경제개혁과정에서도 토지사유화같은 조치들이 급속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따라서 러시아의 농업은 경제개혁이 가장 지체된 분야에 해당한다. 러시아에는 아직 토지시장이 기능하지 않고 있으며, 사영농장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급진적 개혁의 실시과정에서 농업생산과 투자가 급속히 감소했으며, 농장들의 재정상태는 악화되었다. 1990년 이후 농업생산은 1983년 가격대비 24%가 감소했으며

85) David Lane, *Soviet Society under Perestroika*, pp.47~48.

86) Hedrick Smith, *The New Russians*, pp. 211~215.

1994년의 경우 전체 농장의 절반이 손실을 경험했다.⁸⁷⁾

중국은 가격자유화에 있어서 부분적이며, 순차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시간적으로도 러시아보다 긴 간격을 두었다. 따라서 급격한 가격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러시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중국은 이중가격체제를 구성했다. 이는 가격체제가 자유가격과 국가가 정한 고시가격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 중반 중국의 개혁세력은 전면적인 가격자유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결국 점진적인 개혁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소매가격의 1/3이 정부의 통제를 받았고, 1990년대 초반에는 소매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사실상 사라졌다. 도매부문의 가격자유화는 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개혁 이후 10여년 이상이 경과한 90년대까지도 산업자본재의 2/5가 시장가격의 1/3정도인 국가의 고시가격에 묶여 있었다.⁸⁸⁾ 그러나 국가가 가격을 통제함에 따라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고 국가는 이를 보전해 줄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가격통제를 받는 기업의 경우 손실이 가격통제에서 발생하는지 또는 경영부실에서 발생하는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영과 생산의 효율성이 매우 작다. 또한 통제가격이 점차 폐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도기적인 매점매석행위가 발생하고 이는 재고증가와 부족상태의 심화로 귀결된다. 이중가격은 소비자차원에서는 국영상점(상품의 질에 대한 보장이 없는)과 자유시장에서의 서로 다른 가격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기업차원에서 이중가격은 지정된 물량에 대한 낮은 가격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보다 높은 시장가격을

87) D. Sedik, C. Foster & W. Liefert, "Economic Reforms and Agriculture in the Russian Federation 1992-1995",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2 (1996), pp. 133~148 참조.

88) P. Nolan, *China's Rise, Russia's Fall*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p. 175~176.

의미한다. 또한 이는 동시에 국유기업과의 거래를 거쳐 구매한 자원의 투입을 통한 생산물의 가격과 사기업과의 거래를 거쳐 구매한 자원의 투입을 통한 생산물의 가격이 다르게 됨을 의미한다. 소비자를 위한 상품에 대한 이중가격의 실시는 산출을 증가시키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경영부실이 아닌 국가가 할당한 낮은 가격의 생산물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이중가격은 부패구조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가 할당한 생산물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엄격한 감시체제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효과적인 감시와 균형있는 자원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생산의 감소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⁸⁹⁾ 이와 같은 설명은 부분적인 가격자유화와 국유기업체제가 융화되기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가격자유화가 시행되는 동안 국유기업은 본격적인 개혁과정에 놓이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외부의 세계경제체제에 대해서 개방정책을 취했지만 그 방법은 달랐다. 러시아의 개방은 급속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가격자유화가 시행된 1992년 러시아는 통합된 연동환율제도를 채택했으며 외국무역을 자유화했다. 러시아의 경제개혁과정에서 서방의 원조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특히 안정화정책의 시행과정에서 해외원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점에 있어서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경제개혁의 시행에 있어서 외국의 원조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려 했다. 개혁의 초기부터 개방정책을 실시했던 중국의 경우 개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조치는 외부세계에 대한 중국의 창문이자 실험실의 역할을 하는 경제특구를 만드는 일이었다. 경제특구의 성공에 따라서 해안의 도시들이 개방되었고 경

89) Wing Thy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pp. 278~279.

제영역은 양자강과 같은 강들을 따라서 확장되었다. 국경은 점차 개방되어갔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의 주요도시들도 개방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중국을 세계경제에 편입하게 만드는 점진적인 과정이었다.⁹⁰⁾

소유권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러시아는 GNP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유부문의 사유화에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매우 짧은 기간에 국유산업을 사유나 협동적 소유 혹은 혼합된 형태의 소유제도로 변화시켜야 했다. 이와 같은 개혁방법은 필연적으로 생산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경제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도 국유산업부문에 의미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유산업의 존재와 발전을 보호했으며 그 대신 비국유산업의 발전을 자극했다. 시장의 원리에 기초해서 촌락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사기업, 협동조합, 중국과 외국과의 합작기업, 그리고 외국투자기업 등의 설립을 자극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은 1994년의 경우 공업생산의 48%를 점유하게 되었으며, 반대로 국유기업의 점유율은 1978년의 82%에서 52%로 낮아졌다.⁹¹⁾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주로 이들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의 설립에 기초한 것이며 따라서 러시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국유산업에 대한 충격과 이에 기인한 경기후퇴는 발생하지 않았다.

3. 평가

중국의 경제개혁을 평가하는 문헌들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은 중국경제개혁이 농업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점진적이었다는

90) Jingje Li,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nd Russian Economic Reform," pp. 309~313.

91) Ibid., pp. 309~313.

것과, 중국의 경제개혁은 정치적인 개혁없이 진행되었다는 점들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경제적인 성공의 원인중의 상당부분은 독재권력의 유지에 있다는 주장도 종종 나타났다.⁹²⁾ 또한 이와 같은 요인들은 점진적 개혁의 주요논거로 인용되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개혁이 공업부문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국유기업도 개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유화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경제개혁이 정치개혁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들은 단순하게 일반화될 수 없다. 중국의 경제 개혁의 상대적 성공은 개혁정책의 차이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혁명이 끝난 1976년 당시 중국의 농업부문은 생산의 37%와 고용의 71%를 담당하는 가장 큰 경제부문이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문제해결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팽배했다. 라오스와 베트남 역시 농업개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이었다. 체코와 폴란드, 러시아가 공업부문의 개혁을 선행시킨 것은 이 부문이 경제의 지배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업부문의 비중이 컸던인 몽고도 다른 아시아국가와 달리 공업부문에서 먼저 개혁을 시작했다. 공업부문의 개혁은 농업부문보다 어렵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개혁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효과들을 발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자본집약적인 공장 과 장비들을 노동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집단농장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적이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⁹³⁾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을 설명함에 있어서 등장하는 또하나의 주제

92) Barry Naughton, "What is Distinctive about China's Economic Transition, State Enterprise Reform and Overall System Transformation," pp. 471~472.

93) Wing Thye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pp. 281~284.

는 사회주의 국유기업들의 성장가능성이다. 중국 국유기업의 상당수가 개혁기간중 일정한 성장을 했으며, 성장률이 개혁이전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국유기업의 성공적인 개혁가능성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의 성장률은 비국유기업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졌다. 효율성의 차원에서 볼 때 국유기업에 대한 평가는 더 부정적이다. 개혁시작 이후 국유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경제가 가장 호황이었던 1992년조차 국유기업의 2/3가 손실을 경험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경제개혁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다른 소유형태의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국영기업의 이윤을 저하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윤을 저하는 국유부문 노동자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 데에서도 기인한다. 국유산업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11.6%에서 1988년 15.9%로 증가했으며, 주택지원 등 국유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타 간접적인 지원도 2배이상 증가했다. 국유기업의 지배인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의 확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국유기업들의 재정적인 취약성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첫째는 국유기업에 의존하는 국가수입이 축소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적자가 확대된다. 두 번째는 국유기업의 손실과 투자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로 충당되기 때문에 은행체제를 약화시키게 된다.⁹⁴⁾ 중국의 국유기업은 실질적인 개혁과정에 놓여 있지 않았으며, 이제 성장하는 비국유기업에 과도한 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은 최근 중국내에서 국유기업의 본격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⁹⁵⁾ 따라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중국

94) Ibid., pp. 284~288.

의 국유기업들이 본격적인 시장체제에 놓이게 되면, 러시아의 경제 개혁이 경험했던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논쟁점은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시간적인 순차성이다. 경제자유화가 정치자유화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경제적인 측면(페레스트로이카)에서는 실패한 반면 정치적인 측면(글라스노스트)에서는 성공했다는 점과, 정치적인 개방이 없이도 중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에 기초한다. 이와 같은 시각의 논거중의 하나는 경제개혁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일정 부분들에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유화는 경제개혁추진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의 조직화를 가능케 하며, 이는 러시아의 사례에서 상징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경제개혁에 따라 계층간 지역간의 격차, 부패와 범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는 천안문사태로까지 이어졌으나 정치적 통제력을 가진 중국공산당은 스탈린주의적 방식의 억압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적인 정치적 변화는 그 동안 무시되어 왔다. 중국은 현재 중앙정부가 지시하고 지역이 이를 수행하는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경제권력의 지방으로의 양도는 정치적인 권력의 양도로 이어진다. 지방의 정치적 자율성의 증가는 개혁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천안문 사태 이후 보수주의자들이 경제에 대한

95) 중국 공산당은 1997년 9월 6~9일까지 제14기 당중앙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7중전회)를 열었다. 이때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한 조치들이 결정되어 향후 국유기업의 축소를 예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향후 3년안에 현재의 국유기업을 1/5 정도로 대폭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해체해 사유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13,000개인 중·대형국유기업을 3000개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사유화한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1997. 9. 10. 또한 9월 12일의 제15차 전국대표회의(15전대)에서 장쩌민은 국영기업개혁과 경제구조의 심화에 따라서 실업과 인력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동자들은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준다는 사고를 버려야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유기업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국일보」, 1997. 9. 13.

사회주의적 통제의 강화를 추진했으나 지방은 이에 대해서 반발했다. 따라서 중국의 실제적인 정치적 교훈은 개혁의 첫 번째 조치는 권력의 분권화이며, 중앙이 다시 권력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경제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자유화가 경제적인 개혁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제고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⁹⁶⁾

중국 경제개혁은 몇 가지 경험적인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커다란 교훈은 중앙계획경제체제가 시장지향형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체제개혁의 점진적 방식을 채택한 중국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급진적인 개혁시도가 가져온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며, 성장지향형의 경제를 이루어 왔다. 중국의 경제개혁이 보여주는 경험적인 교훈의 또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에 만성적이었던 결핍 혹은 부족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체제전환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진적인 경제개혁에서 발생하는 경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피할 수 있었던 중국의 경제개혁은 동시에 다른 형태의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성장이 비국가부문의 역동적인 성장에 힘입은 것이며, 국유부문이 점차 전체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96) Wing Thy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pp. 288~290.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지도부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집중제의 강화와 인민의 권익증대를 위해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미있는 수준의 정치개혁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다. 이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제분야와 갈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97년 8월 베이징대의 경제학과 상더원교수가 작성, 공개하여 파문을 일으킨 '중국정치체제 개혁의 약간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낙후된 정치민주화를 비난하고, 삼권분립과 국정책임자의 직선제 및 임기제 수용, 언론자유 등 중국 공산당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겨레신문」, 1997. 9. 10.

또한 공급자 위주의 경제에서 수요자 중심경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와 사회부문의 제도적인 장치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쟁적인 행위체계'가 자동적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국유기업들이 재정적인 문제에 책임이 없다면, 불필요하거나 비경쟁적인 상품이라도 생산을 계속한다. 그러나 시장체제의 형성에 따른 경쟁압력의 증가는 국유기업의 변화를 유도할 제도적인 환경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보호제도가 폐지되면 비효율적인 국유기업들은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⁹⁷⁾ 물론 이 경우에도 반대의 상황, 즉 국유기업이 비국유기업의 성장을 잠식하는 짐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은 러시아와 동유럽의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⁹⁸⁾ 첫째,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FDI(해외직접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성공적인 수출정책은 외국자본의 유치와 경영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⁹⁹⁾ 둘째, 체제전환

97) M. Knell & Wenyan Yang, "Lessons from China on a Strategy for the Socialist Economies in Transition," M. Knell & C. Rider, *Socialist Economies in Transition: Appraisals of the Market Mechanism* (Edward Elgar, 1992), pp. 234~235.

98)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pp. 61~62.

99) 중국과 러시아, 동구에 있어서 해외의 지원은 서로 성격이 달랐다. 1980년대 후반 중국은 이미 매년 200-250억불을 외부로부터 유입시키고 있었으며, 이는 주로 FDI를 통해서였다. 화교들로부터의 자금유입은 언어장벽이 없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동구와 러시아의 부채는 중앙계획경제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고 중앙은행의 신용을 매개로 했지만, 중국은 분권화된 재정체계를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화교들에 의해서 경영과 마케팅 등 각분야에서 중국의 회사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Ibid.*, pp. 54~55.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외부의 투자는 매우 미약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해외의 지원은 직접투자보다는 대부분 차관이라는 특성을 지녔다. 예를 들어 국민1인당 외국투자액에 있어서 러시아는 동구권과 CIS권의 15개 국가중 13위에 그쳤다. 「중앙일보」, 1997. 11. 11.

에 있어서 사회적인 조정도 한계를 지닌 것이지만 개인들의 자발성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기업들의 급속한 증가와 사유화가 시장 질서와 제도의 자연적 형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와 공공의 이익들은 이기적인 기업가들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제도적인 기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특성에 입각한 개혁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혁은 국가의 크기와 다양성, 국가와 문화공동체와의 차이, 사회안전장치로서의 대가족제도 등에 의해서 가능했다. 따라서 동구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검토가 ‘급속한 전환’보다 중요할 수가 있다. 넷째, 중국은 수출지향정책과 개방정책이 부채 없는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다섯째, 개혁정책은 임금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때와 경제특구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은 전체적인 규제체제들이 작동할 때에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러시아를 포함해 급진적 개혁을 시도한 구사회주의권의 경제개혁 과정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급진적 사유화의 경우 기술적 복잡함과 정치적인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자본의 부족으로 지체되고 방해받았다. 이는 사유화 이전에 국유기업을 상업화하는 것이 잠정적인 생존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유기업들의 적응양태는 국가보조의 축소와 사유화 전망,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급진적인 구조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감소현상도 국가마다 달랐다. 사회주의체제의 몰락 이전에 제한된 개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헝가리와 폴란드는 그렇지 않았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구소련지역에서보다 생산감소현상이 더 작게 나타났다.¹⁰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러시아에는 몇 가지 저해요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아슬룬드(Aslund)는 구공산주의 체제의 회복을 노리는 공산세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민족주의와 파시즘, 급격한 이행과정에 기인하는 사회적인 혼돈과 불안, 노동자의 저항, 실업, 궁핍화, 인플레이션 등이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지적했다.¹⁰¹⁾ 특히 체제전환의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인플레이션의 통제여부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행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초인플레이션현상이다. IMF는 1992년의 경우 구중앙통제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786% 이상으로 추산했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평균치를 상회했다. 초인플레이션은 투자와 GNP의 감소를 초래한다.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이행기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순수한 경제적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도 가속화된다. 초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일부계층 특히 노멘클라투라 출신들에 의한 지대추구행위이다. 인플레이션은 사회적 공익을 창출하지 않는 소수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지만 그 비용은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대추구의 상당부분은 국가의 보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국가재정상태의 악화를 가져온다.¹⁰²⁾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심각한 현상중

100) Minxin Pei, "Microfoundations of State-Socialism and Patter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p. 135.

101) A. Aslund, "Reform vs. 'Rent-Seeking' in Russia's Economic Transformation," *Transition*, Vol. 2, No.2 (Jan 1996), pp. 12~13.

102) Anders Aslund, "Lessons of the First Four Years of Systemic Change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9 (1994), pp. 24~28. 노멘클라투라의 지대추구에 대해서는 Aslund, "Reform vs. 'Rent-Seeking' in Russia's Economic Transformation," *Transition*, Vol. 2, No.2 (Jan 1996). 참조.

의 하나는 경기후퇴현상이다. 급진적인 경제체제전환에 있어서 경기후퇴는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의 기본적인 운영원리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공급자 위주의 경제에서 구매자 위주의 경제로의 변화, 실제 경제구조의 전환, 그리고 경제구조의 교란과 새로운 정책의 시행들이 이행기의 과도기적 혼란상태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서 경기후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¹⁰³⁾ 사회주의 시기 동안 단지 목표달성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구매력이 없는 상품들과 과대성장한 군수산업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고, 성장을 위해서 장려되어야 할 산업들도 이행초기 장기적인 저투자와 경쟁력 상실의 결과로 생산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체제전환기에 나타나는 경기후퇴의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과도하게 사용되어 온 자원들이 고갈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연자원의 이용에 있어 보호나 재충전의 개념을 거의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요인들만으로 체제전환기의 경기후퇴현상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인위적 요인들이 경기후퇴현상을 심화시키거나 구조화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는 개혁정책의 계획단계와 실시과정에서의 실수들,

103) J. Kornai, "Transformational Recession: the Main Caus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19 (1994), pp. 39~63. 'J-curve 효과' 혹은 '전환기의 경기후퇴(transformational recession)' 등으로 지칭되는 경기후퇴현상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논리가 다른 새로운 구조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적응과정에서 생산성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체제변환기의 경기후퇴에 대한 다른 논의는 S. Gomulka, *The Causes of Recession Following Stabilization*, Center for Economic Performance, Discussion Paper. No. 33 (1991). J. C. Brada & A. King, "Is There a J-Curve for the Economic Transition to Capitalism?," *Economics of Planning*, No. 25 (1992). J. Kornai, "Transformational Recession," in C. T. Saunders, *Eastern Europe in Crisis and Way Out* (Macmillan, 1995). M. Ellman, "Transformation, Depression, and Economic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9 (1994) 등 참조.

그리고 외적인 요소로서 사회주의 경제권의 협력체제의 와해 등을 들 수 있다.¹⁰⁴⁾ 또한 노멘클라투라출신들의 지대추구행위도 경기후퇴에 영향을 미친다.¹⁰⁵⁾

지대추구행위가 가능한 것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중 국가의 조절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1992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개혁정책들이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변화되어 온 것이 이를 설명해 준다. 사회주의 국가의 기구들은 이를 만든 관료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관료들은 공적 이해관계보다는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조정하는 지배자들이었다. 이행기에도 관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관철에 몰두하며, 부유한 기업가들의 등장은 권력을 가진 관료들을 광범한 부패구조와 연결시킨다. 더구나 이행기사회에는 이와 같은 부패구조를 제어할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서구적인 의미의 법적인 장치들은 발달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임의적인 억압이 성행했다. 이행기는 사회주의 체제의 독재적 통제력과 억압적인 공산당의 기능을 와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의 형성은 장시간을 필요로 했다. 또한 규제성이 강한 규칙과 제도들은 저임금과 초인플레이션에 고통받고 있는 관료와 경찰관들에게 뇌물수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따라서 이행기의 국가의 조절능력은 극도로 약화되었다.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권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결정들이 소수 관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104) D. K. Rostai, "Economic Transforma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essons from Experience," A. Aganbegyan, O. Bogomolov, and M. Kaser (eds), *Economics in a Changing World*, vol. 1,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pp. 234~235.

105) Anders Aslund, "Reform vs. 'Rent-Seeking' in Russia's Economic Transformation" 참조.

야 한다. 이행기의 초기 국가역할의 증대는 부패구조의 확대에 유리할 수 있으며, 국가역할의 축소없이 부패는 감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사회주의 이행기의 ‘약한 국가’에 과부하를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¹⁰⁶⁾

관료주의적 계획경제의 소멸은 러시아 국가의 조절능력을 약화시켰다. 국가의 계획기구들이 영향력을 상실하자, 자원분배과정에 있어서 독점적 통제체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독점적 통제체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와도 다른 특성을 지닌다. 러시아 이행기 경제의 특성은 가격결정과 재정, 거대한 에너지산업 그리고 여타부분 등이 유사국가(pseudostate)적 지배와 유사사유(pseudoprivate)¹⁰⁷⁾의 지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행기 러시아의 경제는 조합주의적 관료구조들간의 비경제적인 경쟁, 그리고 이들 권력과 경제과정의 조절을 위한 간섭간의 충돌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이행기의 새로운 자원분배체제의 등장의 결과 중에서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러시아의 경제가 독점분야와 비독점분야로 양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점분야의 경우 기술과 시장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집중화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중요한 자원을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적 조합주의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거대한 에너지 산업과 재정체계, 그리고 상당부분의 공업이 이에 속하며, 이들은 시장경제에서조차 얻기 어려운 막대한 이윤을 챙긴다. 비

106) Anders Aslund, "Lessons of the First Four Years of Systemic Change in Eastern Europe," pp. 28~29.

107) 이 두 가지 개념은 각각 국가의 통제가 명목상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거대 독점기업들이 형태상으로는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집단의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분야에는 집중화가 덜된 노동력의 재생산, 소비자상품시장, 그리고 농업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독점분야에 유리한 가격과 재정, 임대제도 등 제반영역의 지속적인 왜곡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같은 왜곡은 비단 독점체제가 시장경쟁에서 유리하다는 특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부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가권력의 재분배와 비독점부분에 대한 독점부분의 제도적 우월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관료주의적 조합주의구조 형성의 기초가 되며, 이는 또한 국가의 통제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비경제적인 경쟁과 권력갈등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는 불평등한 두개의 부분, 즉 특권을 향유하며 고도로 독점적 성격을 가진 분야의 종사자들과 퇴화하는 비독점분야의 종사자들로 나뉘어지고 있다.¹⁰⁸⁾

러시아의 경험은 사회적인 변화와 정치적인 요인들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소들이 경제정책의 시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도기적인 혼돈과 경기후퇴에 대한 사회적 반발은 개혁정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며, 이는 개혁에 비판적인 집단들의 정치세력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전환과정에서 민주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민주화는 새로운 국가제도에 필요한 힘의 부여와 구엘리트의 기반해체,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서 구엘리트들의 지대추구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진전된 제도화는 개혁정책의 수립과 시행도 가능하게 만든다.¹⁰⁹⁾ 이와 같은 점에서 체제전환기에 정부가 구체제의 노멘클라투라에 의해서 지배된다면, 지대추구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으며 근본

108) Svetlana Glinkina,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pp. 54~56.

109) Anders Aslund, "Lessons of the First Four Years of Systemic Change in Eastern Europe," pp. 29~31.

적인 체제개혁을 시도하기도 어렵게 된다.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에 대해서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교훈적인 의미를 지닌다.¹¹⁰⁾

첫째, 통계적인 정확성을 지니는 것이 개혁전략의 운용에 필수적이다. 동유럽과 소련의 경험은 상황을 호도하거나 나쁘게 보이는 것 모두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구소련의 경우 통계적인 오차들은 주로 장부상의 허위기재를 통해서 나타났다.¹¹¹⁾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현상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통계는 개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GDP수치의 증가 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주택·물리적 하부구조·도로건설·에너지공급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환경보존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비경쟁적이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나타난 것처럼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한다. 셋째, 지속적인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을 피해야 한다. 넷째, 규제체제를

110)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pp. 60~61.

111)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았으나 생산된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장부조작은 1930~1950년대에는 '위로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1970~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아래에서부터' 불로소득추구방법으로 소련사회전체에 확산된 현상이었다. 또한 목표달성의 압력을 받는 기업지배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도 장부상의 허위기재였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에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구 소련의 경우 장부조작의 규모는 건축의 70%, 운송 100%, 목재 50%, 그리고 추수기 농업부분에서는 20~30%에 이르렀다. A.B. Крылова, "Лабриранта х теневој економи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No 12 (Москва, 1992), pp. 45~46.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상의 조작은 이행기에도 나타난다. 사회주의 시기에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통계수치를 부풀리는 조작이 성행했지만 이행기에는 탈세를 위해서 실제보다 통계수치를 축소시킨다. 또한 비공식부문의 성장과 결핍경제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의 해소, 상품의 품질향상 등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낳긴 통계상의 오차와 이행기의 통계적 조작 때문에 경제수치의 악화는 실제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Anders Aslund, "Lessons of the First Four Years of Systemic Change in Eastern Europe," pp. 31~34.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충격요법식 개혁은 시장체제에 대한 적합한 규제체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유화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소유권의 변화만으로는 효율성이 없는 독점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조화롭게 유지해야 한다. 공산당 유일체제하에서는 시장경제의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발현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원화된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평가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양국에서 경제체제전환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아직 잠정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가시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본격적인 경제체제전환으로 인한 비용의 발생이 작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은 국가의 소유와 통제력을 유지하는 사회주의 경제에 집착해 왔으며 해안의 경제특구와 수출산업들이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지역간·계층간 불평등은 점점 심화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원들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은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안지역에서도 사적 경영과 권위주의적 통제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후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러시아는 최근 부문에 따라서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¹¹²⁾ 특히 몇몇 논자들은 러시아는 이미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주요 목표들을

112)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pp. 59~60. 유럽경제부흥개발은행(EBRD)에 따르면 러시아는 1997년 처음으로 1%대의 실질적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동유럽 전체의 지역경제도 1997년 처음으로 성장세로 돌아서 GDP 기준 1.7%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며, 내년에는 3.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중 개혁을 먼저 시작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은 이미 1994년부터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했다. 『중앙일보』, 1997. 11. 11.

달성했다는 점과 시장이 러시아의 자원분배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¹¹³⁾ 또한 급진적 경제개혁이 실시되던 1990년대 초반 러시아인들이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대해서 기대했던 과도한 희망들이 현실화되었다는 점도 의미를 지닌다. 특히 체제전환기 심각한 경기후퇴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치를 가지게 했으며 시장체제로의 이행에 스스로 상당한 비용을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과정은 아직 최종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13) Anders Aslund, *How Russia Became a Market Econom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5).

제VI장 결론

구소련 지역과 동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최근 10~20년간 경제체제에 있어서 의미있는 개혁 조치들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는 각 국가들마다 다르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원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중국에서 시작된 경제개혁, 그리고 소련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 이행을 위한 급진적 정책은 두 국가에 서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제개혁조치들의 실행에 있어 중국은 비교적 완만하고 단계적 과정을 통해 경제개혁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점진적인 경제체제전환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비록 초기 개혁정책이 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경제체제 개혁조치들은 'big bang'을 의도한 급진적인 방식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은 서로 다른 구조적 조건에서 출발했다. 우선 개혁초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정도와 방향성의 설정이 달랐다. 러시아의 국가는 공산당의 해체와 함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었지만, 중국의 경우 경제개혁에 있어서 국가는 조절능력을 행사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서 사회주의체제의 완결성 정도, 중앙집중화 정도, 소유권제도의 형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상태, 그리고 경제체제 개혁으로 인한 정치적 재조정의 결과도 달랐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에 있어서 개혁의 돌파구는 서로 다른 처방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가격자유화를 경제개혁의 돌파구로 사용했으며, 농업에서 효율성 있는 개혁조치들이 시행되지 못했다. 반면 농업이 경제의 주축을 구성하고 있던 중국은 후진적인 농업부

분의 개혁을 돌파구로 삼았다. 중국은 가격자유화에 있어서 부분적이며, 순차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시간적으로도 러시아보다 긴 간격을 두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세계경제에 대해 개방정책을 취했지만 그 방법은 달랐다. 러시아의 개방은 급속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중국의 개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주로 새로운 형태를 지닌 기업들의 설립에 기초한 것이며 따라서 러시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국유산업에 대한 충격과 이로 인한 경기후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개혁이 주는 시사점은 중앙계획경제체제가 시장지향형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성장형 경제개혁을 통해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중국의 발전이 비국가부문의 역동적인 성장에 힘입은 것이지만, 국유부문이 점차 부담스러운 짐으로 부과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남았다.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로의 급진적 이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구공산주의 체제의 회복을 추구하는 공산세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민족주의와 파시즘, 급격한 이행과정에 기인하는 사회적인 혼돈과 불안, 노동자의 저항, 경기후퇴와 구조조정에서 나타나는 실업, 궁핍화, 인플레이션 등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에서 국가의 조절능력이 약화된 것도 문제로 등장했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개혁이 주는 교훈은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공공이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을 피해야 하며 규제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장기적으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조화롭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평가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양국의 경제체제전환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아직 잠정적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성공과 러시아의 침체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유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중국의 가시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본격적인 경제체제전환으로 인한 비용의 지출이 작았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은 최근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국유기업의 개혁에 따라 발생할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의 파장은 경제개혁의 부정적 측면과 맞물려 증폭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은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것이 될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지역과 부문에 따라서 성장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미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주요한 목표들을 달성했으며, 시장이 러시아의 자원분배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체제전환기의 심각한 경기후퇴는 러시아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치를 가지게 했으며 시장체제로의 이행에 스스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은 아직 최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이 주는 공통적인 함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의 성패여부는 체제전환방식의 차이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체제전환방식의 선택과 정책의 수행은 각 국가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들에 의해서 영향받으며, 동시에 경제외적인 다양한 변수들도 경제체제 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서로 다른 경험은 경제체제 개혁과정은 사회주의경제의 체제전환의 분석에 유용한 이념형의 형

성에 기여할 것이다.

구사회주의권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아직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역시 사회주의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시장화를 지향한 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북한은 최근 자유시장의 의미를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분조제 도입, 그리고 나진·선봉지구의 개방과 무역제일주의를 강조하는 등 대외개방도 일정정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초기적인 개혁조치들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는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식량문제로 표출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적어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보고 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해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북한에서 동구와 러시아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냐에 놓여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경험이 북한의 개혁방향을 예측하는데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체제가 사회주의의 일반성을 지니고 있으나, 공업화의 수준과 발전정도, 정치체제의 경직성 등 구조적으로 상이한 요인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변화 역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 수반되는 특성들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경제체제 변화방향의 이해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험들은 중요한 준거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시사점은 어떠한 경제개혁정책을 선택하든 성공여부는 시장화의 추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의 성공여부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시장화의 진척에 좌우될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은 우선적으로 농업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은 소유권의 변화라는 보다 과감한 조치들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도외시한 농업투자는 장기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출발조건에 있어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중국보다 높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개혁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유사조치들이 공업부문에서도 필요하다. 개혁과정에서 다양한 소유형태의 기업들의 형성이 가능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개혁은 농업부문의 개혁에 비해서 어려운 과제이며, 이 과정에서 경제관료들과 노동자들의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경제개혁정책의 속도와 폭에 대한 보수파들의 반발과 저항이 발생할 것이며, 전환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도 엘리트층들의 지대추구행위와 부패가 체제전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북한의 개혁과정에서도 중앙집권적인 명령경제체제의 해체와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의 탈중앙화는 국가의 통제능력 상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구사회주의 기득권층을 중심으로하는 이익집단들에게 경제권력이 양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탈중앙화과정은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를 수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하경제화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시장체제의 형성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의 흐름이 변화하고, 따라서 사회구조의 재편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경제주체와 아울러 소외층들을 형성시킬 것이고, 기득권층들의 반발은 사회주의체

제의 복구와 국가주도 경제체제 및 사회주의복지체제에 대한 회귀라는 이념적 지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양태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 좌파세력이 주요한 정치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과정이 주는 일반적인 함의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상의 특수성에 의해서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북한의 경우는 다소 다른 양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한의 지원은 경우에 따라서 북한의 개혁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서재진 외.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야블린스키 외. 「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한중만 역. 서울: 열린책들, 1991.
- 폴 그레고리·로버트 스투어트.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연합 경제의 구조와 전망」. 한중만 외 역. 서울: 열린책들, 1992.
- Aslund, Anders. *Gorbachev's Struggle for Economic Reform*. Ithaca, 1991.
- _____. *How Russia Became a Market Econom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5.
- _____. *Post-Communist Economic Revolutions: How Big a Bang?*.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2.
- Crane, T.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M. E. Sharpe Inc, 1990.
- Dyker, David A. *Restructuring the Soviet Economy*. Routledge, 1991.
- Eckstein, A. *China's Economic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Gaidar, Yegor & Pohl, Karl Otto. *Russian Reform/ International Money*. Cambridge: The MIT Press, 1995.
- Gomulka, S. *The Causes of Recession Following Stabilization*. Center for

- Economic Performance. Discussion Paper. No. 33 (1991).
- Hausner, J., Jessop, B. and K. Nielson, eds., *Strategic Choice and Path-Dependency in Post-Socialism*. Edward Elgar, 1995.
- Jeffris, Ian.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 to the Market*. London: Routledge, 1993.
- Kornai, J. *The Road to a Free Economy*. New York: W.W. Norton, 1990.
- Lane, David. *Soviet Society under Perestroika*. Boston: Unwin Hyman, 1990.
- Mccauley, Martin. eds., *Gorbachev and Perestroik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 Minami, Ryosh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London: Macmillan, 1994.
- Nolan, P. *China's Rise, Russia's Fall*.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 Scott, Simie and Nixon, Bob. *Tinamen Square*. Vancouver: Douglas & MacIntyre, 1990.
- Shangquan Gao. *China's Economic Reform*. London: Macmillan, 1996.
- Smith, Hedrick. *The New Russians*. New York: Random House, 1990.
- Weller, Robert P. *Resistance, Chaos and Control in China*. London: Macmillan, 1994.
- Воротилов, Н. 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предприятий в рыночном хозяйстве*. СПб, 1993.
- Грасильщиков, В.А., и др., *Модернизация: Зарубежный опыт и Россия*. Москва: Агентство Информат, 1994.

Максимов, С. Н. *Перестройка и проблемы 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форм*.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 во СПбГУ, 1992.

2. 논문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부. “러시아의 사회-경제개혁: 현상항과 새로운 접근법”. 「중소연구」 (1994년 여름).
- 「러시아연구」. “1991-1993년도 러시아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결과.” No. 2 (1994).
- 서석홍. “중국의 향진기업: 그 발전과 성과 및 과제.” 「중소연구」. 20권. 1호 (1996).
- 이창제. “러시아 경제체제전환 시도에 대한 평가.” 「러시아 새질서의 모색」. 서울: 열린책들, 1994.
- 이철원. “러시아의 최근 경제현황.” 「지역경제」 (1995. 5).
-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정치구도”, 「동북아」. 제5집 (1997).
- 최수웅. “중국의 96년 경제실적과 97년 전망.” 「지역경제」 (1997. 1).
- Aslund, Anders. “Lessons of the First Four Years of Systemic Change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9 (1994).
- _____. “Reform vs. ‘Rent-Seeking’ in Russia’s Economic Transformation.” *Transition*. Vol. 2, No.2 (Jan 1996).
- Bornstein, Morris. “Russia’s Mass Privatisation Programme”.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6, No. 4 (1994).
- Brada, J. C. & King, A. “Is There a J-Curve for the Economic Transition to Capitalism?.” *Economics of Planning*. No. 25

- (1992).
- Calvo, G. & Frenkel, J. "Credit Markets, Credibilit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 Cochrane, J. H. and Ickes, B. A. "Macroeconomics in Russia, E. D. Lazear."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Hoover Institute Press, 1995.
- Colton, T. et al., "Five Years after the Collaps of the USSR." *Post-Soviet Affairs*. No. 13 (1997).
- Csaba, Laszl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996).
- Dallin, Alexander. "Causes of the Collapse of the USSR." *Post-Soviet Affairs*. Vol. 8, No. 4 (1992).
- Du Rungseng. "The Rural Economy." Peter Nolan & Dong Fureng, et al., *The Chinese Economy and its Future*. Polity Press, 1990.
- Ellman, M. "Transformation, Depression, and Economic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9 (1994).
- Fischer, S. & Gelb, A.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 Glinkina, Svetlana.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 Hanson, P. "What Sort of Capitalism in Russia."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9, No. 1 (1997).

- Jingje Li.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nd Russian Economic Reform."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 Katsuji Nakagane. "Economic Reforms in China." *Economic Reforms in Socialist Countries*.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System and Information, 1990.
- Knell, M. & Wenyan Yang. "Lessons from China on a Strategy for the Socialist Economies in Transition." M. Knell & C. Rider, *Socialist Economies in Transition: Appraisals of the Market Mechanism*. Edward Elgar, 1992.
- Kollantai, Vladimir. "Social Aspects of Economic Reform in Russia." *Eastern Europe in Crisis and Way out*. London: Macmillan, 1995.
- Kornai, J. "Transformational Recession." in C. T. Saunders, *Eastern Europe in Crisis and Way Out*, London: Macmillan, 1995.
- _____. "Transformational Recession: the Main Caus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9 (1994).
- Kovalio, Jacob. "The 1989 Tiananmen Square Incident." *Asian Perspective*. Vol. 15, No. 1 (1991).
- Lipton, D. & Sachs, J. "Creating a Market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2 (1990).
- Mckinnon, R. "Taxation, Money, and Credit in a Liberalizing Socialist Economy."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
- Minxin Pei. "Microfoundations of State-Socialism and Patter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 Studies*. Vol. 29, No. 2 (1996).
- Murrel, Peter. "Evolutionary and Radical Approaches to Economic Reform."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
- _____. "What is Shock Therapy." *Post-Soviet Affairs*, Vol. 9, No 2 (1993).
- Naughton, Barry. "What is Distinctive about China's Economic Transition, State Enterprise Reform and Overall System Transforma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 Qing Ning, "China's Socio-Economic Progress: 1991-1995." *Beijing Review* (December 18-24, 1995).
- Rostai, D. K. "Economic Transforma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essons from Experience." A. Aganbegyan, O. Bogomolov, and M. Kaser (eds), *Economics in a Changing World*. Vol. 1.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 Rutland, Peter. "Another Lost Year for the Economy." *Transition*. No. 7 (February, 1997).
- Sachs, J. & Lipton, D. "Poland's Economic Reform." *Foreign Affairs*. Vol. 69, No. 3 (1990).
- Sachs, J. & Wing Thyee Woo. "Experiences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 Sedik, D., Foster, C. & Liefert, W. "Economic Reforms and Agriculture in the Russian Federation 1992-1995."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2 (1996).

- Tatsuo Kaneda. "Gorvachev's Economic Reform." Peter Juviler, Hiroshi Kimura, eds., *Gorvachev's Reform*. Aldine De Gruyter, 1988.
- Whyte, Martin King. "The Social Sources of the Student Demonstrations." Anthony J. Kane, *China Briefing, 1990's*. Westview Press, 1990.
- Wing Thye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 Wu Hongguang. "The Practices of China's Economic Reform." *Economic Reforms in Socialist Countries*.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System and Information, 1990.
- Крылова, А.В. "Лабиринтах теневой экономи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No 12 (1992).
- Весельков, Ф. С. "Нужная рыночная экономика." *Введение в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1.

3. 기타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통계청. 「중국의 주요 경제사회지표」. 서울, 1996.

FBIS, Soviet Union (29. 10. 1991).

Moscow News. No. 35 (September 8-14, 1995).

Statistical Year Book of China 1991. Beijing: State Statistical Bureau,

1992.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1994.

最近 發刊資料 案内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사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의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의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901-2613, 901-2604, FAX: 901-2547)



R0006712
민족통일 연구원